

시초부터
종말을

이사야의 종말 시현

아브라함 길리디

Hebraeus Press

이사야의
예언 및 신학 개요

문학적 장치로 암호화된 이사야 예언은 세계 종말에 관한 시현을 드러내고 히브리 종교에서 잃어버린 부분을 밝힌다.

이사야서에서 새로 밝혀진 증거를 살펴보면, 종말은 시초부터 일어난 사건들로 예고됨을, 미래는 과거와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초부터 종말을

© Copyright 1997, 2012 by Hebraeus Press

www.IsaiahExplained.com

판권 소유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rd Edition, First Printing, 2012

Softcover ISBN 978-0-9626643-3-2

E-Book ISBN 978-0-910511-23-3

이 저작물의 어떤 부분도 글이나 논평에 짧게 인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판사의 서면 동의 없이 복제할 수 없습니다.

Hebraeus Press, P.O. Box 501232, San Diego, CA 92150-1232. 이 저작물은 어떠한 종교나 교회 또는 종파의 관점을 대변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사야 46:10

목차

머리말

소개

고대의 글에 대한 현재의 견해

이사야서의 저자가 한 명이라는 증거

간과된 주제 및 신학

복잡한 메시지를 간단히 함

1. 세계의 종말에 관한 시현

히브리 예언의 패턴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적 패턴

고전적 및 종말적 예언의 핵심 사상

암호명으로 작용하는 고대 이름

미래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심판의 예표
앗수르와 애굽—초강대국의 예표
고전적 예언의 이중 관련성

2. 구조 속에 암호화된 메시지

구조와 내용 - 두 차원

고국에서의 문체, 해외 유배, 행복한 귀향

역사와 예언의 구분

배도, 심판, 회복, 구원

위협 1, 위협 2, 위협 3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저주와 축복

악인들의 멸망/의인들의 구조

이사야의 문학 구조를 통해 신성한 계획이 드러남

3. 역사의 주기적인 반복

과거는 미래를 예시함

과거 사건들의 미래 연대기

하나의 예표인 고대 이스라엘의 배도

종말—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의 날

의인들을 위한 복천년의 평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언약을 맺는 의미

이스라엘은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이스라엘에서의 왕의 역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

이방인들 가운데 유배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서는 새로운 복천년 언약을 맺으심

5. 시온과 바벨론의 이념

이사야의 7부 문학 구조

예언이자 신학

과멸 및 재탄생(이사야 1~5장, 34~35장)

패역 및 준수(이사야 6~8장, 36~40장)

징벌 및 구출(이사야 9~12장, 41~46장)

굴욕 및 승영(이사야 13~23장, 47장)

고난 및 구원(이사야 24~27장, 48~54장)

불충 및 충성(이사야 28~31장, 55~59장)

폐적 및 상속(이사야 32~33장, 60~66장)

이사야서의 구조는 두 개의 시간 틀을 확립함

시온과 바벨론—상반되는 원형

6. 폭군과 종

폭군이 세계를 정복함

은유적 의인화

이사야의 잠재 메시지

하나님의 종은 많은 예표를 가짐

다윗 왕의 의로운 상속자

유대인이 메시야에 거는 기대

7. 하늘에 이르는 이사야의 사다리

이사야—선지자이자 신학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순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

세 아들의 상징적인 이름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의 구하는 역할

위를 향한 막힘 없는 진보

올라가기 전에 내려감

8. 구주-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언약 관계로 매이심

죽음—공동의 적
하나님의 언약이 토대가 됨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리 구원자가 되심
동물 희생—여호와께서 겪으실 희생의 예표
여호와께서 다양한 구원 역할을 맡으심
여호와께서 인류의 구주로서 행하실 지상에서의 사명
이스라엘의 구주는 공의의 법을 이루심
세계의 종말 때의 상황 역전

9. 종말 “여호와의 날”

아주 비슷한 신약 예언
모든 사람의 분열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됨
의는 구원에 선행함
과거—미래의 패턴
뚜렷이 구별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종말 전의 간략한 경고

머리말

대다수의 사람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우리 시대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고대로부터 내려온 잡다한 글들의 “모음”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이사야 글에 담긴 “기묘한 상징”은 기껏해야 일시적인 흥밋거리로 지나지 않는다. 도대체 이사야의 글이 이 현대에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여러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실상은 정반대임을 시사한다. 세계와 인류 앞에 어떤 미래가 놓여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데 이사야서만큼 우리 시대와 관련 깊은 책도 없다. 그런데도 이사야, 특히 흠정역 성경(기원후 1611년)으로 이사야서를 읽는 많은 사람은 그 글을 깨우치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한다. 이 자료를 진지하게 공부하려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책들에 시간과 돈을 쏟아 붓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답은 이사야의 예언에 내재된 문학적 장치에 있는데, 이러한 장치는 예언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문학적 장치로는 주로 문학적 구조와 패턴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는 것에

덧붙여 각기 그 자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문학적 장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나, 이 자료를 통달하려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이사야의 글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이 접근하는 것이 좋다. 즉, 용어에 정통해지고, 이사야의 사고방식을 개념화하기를 배우고, 여러 다른 문학적 구조가 메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바탕으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이 일을 시작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 실망할 것이다.

이사야의 글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점진적으로 탐구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다면, 놀라운 그림이 점차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 여러분은 삶과 하나님, 인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세계관을 갖게 될 것이다. 또 그 세계관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를 다룰 수 있고, 사건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볼 수 있으며, 삶의 모든 조각이 어디에 맞춰지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글이 다른 모든 경전을 해석하는 열쇠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른 경전들 또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오해할 것이나, 여러분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서 있는지를 기쁘게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길리디, 2012년

소개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성경의 예언에 심취해 있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처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는 유럽에서 한 어린이로 도시가 불타고, 전투기가 추락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내 삶은 궁핍했고, 사방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내가 살던 할아버지 집이 폭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때에도 나는 이 삶에 구원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후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나는 그 희망의 느낌을 예언을 통해 확인받곤 했다.

특히 선지자들의 책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한 많은 의문에 답을 해 주는 듯했다. 고대 선지자들이 그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관해서도 말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도 이 말을 해주지는 않았다. “난 단지 그렇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 마치 봉해진 책을 읽는 듯했다. 나는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그 의미를 열어 줄 열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고대의 글에 대한 현재의 견해

나는 자라면서 여러 종교를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내가 느꼈던 것처럼 느끼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히브리 예언이 현대와 관련이 있으며, 역사는 반복되고, 선지자들이 고대에 대해 예언한 것들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유대교에서는 선지자들의 글을 별개의 두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는 선지자 당대의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세계의 종말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이다. 종말의 상황이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상황과 너무도 비슷하여 그의 예언이 또다시 이뤄질 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은 이런 견해에 호응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현대 성경 학자들은 히브리 예언을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그들 자신의 시대 이외의 다른 것에 관해 말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느꼈다.

나는 어린 시절 랍비 학교에서 히브리 성경을 공부했다. 그곳에서 나는 예언 한 구절을 놓고 여러 측면에서, 즉 문자 그대로, 비유적으로, 역사적으로, 예표론적으로 해석하는 유대인의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유대인의 성경 주해를 탐독했고 랍비들과 마주 앉아 선지자들의 글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일 뿐 아니라 시인이었음도 배웠다. 그들은 문학적 특성조차도 의미를 지니도록 글을 구성했다. 사실 모든 말은 무엇을 말했는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치되었느냐에 따라서도 뭔가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랍비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에서조차도 그와 관련해 충분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은 듯했다.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에 관해 말했을까? 아니면, 하지 않았을까? 많은 랍비들은 우리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내가 찾고 있던 증거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경전 해석가이지 문학 학자는 아니었다. 한편, 학자들은 선지자들이 생각한 의미를 거의 파악했지만, 누군가가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에둘러 설명했다. 내가 예언을 우리 시대와 연결하는 듯한 중요한 뭔가를 찾았다고 믿는 그 순간 그것은 마치 담배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또한 학계가 적의와 학문적 시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보적인 성경 학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널리 수용되고 최종적으로 굳어졌기에 보수적 학자들을 낮춰 보고 때로는 그들을 학자로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한편 보수적 학자들은 진보적 학자들이 펼친 얽은 주장을 비웃으며, 그들을 증거를 정직하게 보지 않고 시의에 편승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한 불신자로 보았다.

물론, 규칙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학계는 영적인 것에 우호적이지 않음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들이 우리 시대에 관해 말했다는 느낌을 고수하면서도, 기존의 관점을 배우고, 시험을 볼 때에는 배운 대로 답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사야서의 저자가 한 명이라는 증거

나는 성경 학자인 알 케이 해리슨 교수와 데이비드 노엘 프리먼 교수에게서 사사하였는데, 두 분 모두 정직하고 친절했다. 한 분은 보수적이고, 다른 한 분은

진보적이었다. 나는 그 두 분이 지닌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한 분에게는 아무리 많은 수가 반대 견해를 표명하더라도 겁먹지 않아야 함을 배웠다. 이미 최종적으로 굳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모든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여지가 있었다. 다른 분에게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배웠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및 증거는 가장 폭넓고 깊게 학습한 수준의 연구가 이뤄졌을 때 간단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 줄 수 있다.

나는 박사 과정을 반쯤 진행하던 중에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다. 히브리 선지자들이 정말로 우리 시대에 대해 말했다는 증거를 찾는 탐구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견을 예언서에서 찾아냈다. 이사야서를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서 현대 영어로 번역하던 중에 그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 나는 이사야의 글이 우리가 사는 현 시대의 사회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 주고자 내 번역을 출판하기를 희망했다. 내가 이사야서를 택한 것은 모든 히브리 예언 가운데 가장 내용이 많기 때문이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 실린 책 중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가 많고 강력한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만만찮은 책이기도 하다. 이사야서는 수십 년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이사야서를 번역하면서 책의 한 부분에 있는 일련의 구절이 책의 다른 부분에 있는 다른 일련의 구절과 균형을 이루며 한 구절 한 구절 대구를 이루는 것을 발견했다. 한 곳에서 거짓 신인 바벨론 왕을 묘사하는 21개의 구절이 연속되었다. 이들 구절은 또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시온의 왕을 묘사하는 21개의 구절과 명백하게 대비되었다. 학자들 대부분은 서로 다른 저자들이 이사야서의 이 다른 부분을 썼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니, 서로 다른 두 부분이 그렇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이러한 구절의 첫 번째 예가 이사야서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14장에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여전히 고국에 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의 세계 강대국인 앗수르가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을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학자들은 이사야가 책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직접 썼다고 말한다. 이러한 구절의 두 번째 예는 책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52~53장에 나오는데, 진보적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사야가 아닌 다른 저자가 썼다고 가정하여) “두 번째 이사야”라고 한다. 책의 그 부분에서는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룬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악함 때문에 그들을 추방하셨다. 그러나 책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미래 구원의 날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사야에서 서로 분명한 관련이 없는 두 부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저자 한 명이 두 부분을 모두 기록하였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를 거짓 신인 바벨론 왕과 한 구절 한 구절 대조한 것은 이사야가 당대의 실제 사건보다 그 점을 더 마음에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사야가 역사적 인물을 다뤘을 뿐 아니라 시간과 역사에 국한되지 않으며 선과 악의 특징들을 의인화하는 전형을 또한 다뤘음을 의미한다.

여기 본문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구절이 있다. 이들 구절에서 한 왕의 성격적 특징이 다른 왕의 특징과 상반되게 묘사됐다. 학자들은 오랫동안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그는 누구였는가? 이런 대조적인 구절들이 그 문제에 빛을 비출 것 같았다. 또한, 이들 구절은 53장에 나오는, 이른바 “고난받는 종”이기도 한 메시아에 관해 가장 잘 알려졌고 가장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짝이 되는 구절들이 제공한 예언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서 어떻게 많은 간고를 겪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튼 52장과 14장은 53장에서 예언된 내용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했다.

저자가 별도의 두 구절을 작성하여 서로 완벽하게 관련되게 했음이 내게는 분명히 보였다. 나는 이 발견으로 몹시 신이 났지만, 내 대학교수들은 사실상 그것을 일축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좋은 시작으로 간주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들은 내게 이 분야에서 공헌하려면 적어도 10년은 전념하여 연구함이 필요하다고 말해 주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분들의 조언에 수궁이 간다.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야 나는 내가 아무것에도 정통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내 박사학위 심사 위원장이 이사야서는 내가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하다고 시사해서, 나는 내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었다. 이사야에 초점을 맞추려면 연구의 폭을 넓혀야 했으며, 실제로 그 폭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

그래서 나는 고대 근동 역사 및 문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사야가 고대 근동 문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고 변경했음을 발견했다. 이사야가 애굽인, 가나안인, 바벨론인, 헷 족속의 문학 패턴을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한 것을 보면 그가 그들의 글을 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모든 구조가 자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연구할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성경 연구 분야가 활짝 열려 있어 연구할 수 있으며,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좌우하는 문학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이해가 없다면, 우주를 들여다본 적도 없이 우주를 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간과된 주제 및 신학

나는 이사야서에서 또한 다른 것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흔히 전체를 보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을 논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탈출 주제가 있음을 알아챘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흠어 놓으신 세계 모든 곳에서 더 거대한 규모의 또 다른 탈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새로운 탈출이 이사야가 예언한 일련의 새로운 사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이사야가 이 새 탈출을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광야에서의 방황, 약속의 땅을 새로 상속함 등에 연결한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연결되는 새로운 사건들이 적어도 30개 이상 된다. 사실상, 이사야는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중요한 사건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한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조율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자들은 고대 근동 제왕들이 제후 왕들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및 이스라엘의 왕들과 맺은 언약이 서로 닮았다는 것을 인지했다. 하나님께서는 제왕의 역할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제후의 역할을 맡았다. 학자들은 또한 제후 왕이 제왕에게 보이는 충성에 따라 제왕의 보호를 얻거나 잃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후 왕이 언약의 조건을 지켰다면, 제왕은 제후 및 제후국이 존망을 위협받을 때 그들을 도우려 와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학자들은 제후 왕이 가졌던 대리 보호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전혀 짚어 내지 못했다. 제왕은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제후 왕 때문에 제후 왕의 백성을 보호했다. 다시 말해 제후 왕은 외부의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제왕의 구조를 얻어 내었다.

학자들은 또한 그러한 대리 보호 개념을 이스라엘의 왕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결코 적용한 적이 없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제후 왕에게만 모호하게 적용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리 보호란 관념이 기독교 신학 전반에 얽여져 있다. 그 개념을 이해한다면, 메시아가 하나님과 그러한 언약을 맺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퍼즐 조각을 찾아 서서히 맞춰 가면서, 나는 자신감이 커졌다. 나는 상당히 초보 학자였다.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순진했기 때문일까? 그 일에 전념하여 계속 연구하면서, 새로운 문학적 발견을 할 때마다 나는 그때까지 알게 된 것을 완전히 재평가했고, 이사야 예언의 해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사야의 문학적 특징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커짐에 따라, 나는 모든 시대를 위한, 특히 우리 시대를 위한 선지자가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또한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는 종말론적 글들도 읽었다. 그 문헌에서 나는 이사야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온과 바벨론 사이의 대조를 찾아냈다. 종말적 작가들은 시온을 선의 원형으로, 그리고 바벨론을 악의 원형으로 묘사한다. 이것은 따라잡아야 할 또 다른 단서였다. 이사야서와 종말 예언 사이에 실제적으로 입증 가능한 관계가 있었던가? 나는 그것을 찾기로 결심했다.

복잡한 메시지를 간단히 함

그 후 삼십 년간 이사야서는 내 주된 연구 분야였다. 심지어 박사 과정조차도 이 주제를 통달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했다. 그 세월 동안 연구를 하면서 단 한 권의 예언서 속에 신성한 지식이 얼마나 풍부하게 들어 있을 수 있는지 목격하기 시작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자 뛰어난 시인만이 이처럼 아름답고 난해한 이사야서와 같은 작품을 쓸 수 있다.

내 학술 저작의 축약본인 시초부터 종말을에서, 나는 평균적인 성경 독자에게 내가 발견한 것들을 소개한다. 나는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고심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대부분은 이사야의 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세계 미래의 공포와 영광이 담긴 이사야의 초월적인 시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에서 시작한다. 히브리 예언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선사하여, 그 책에 있는지도 몰랐을, 새롭지만 오래된, 놀랄 만한 진리들로 여러분을 이끌고자 한다.

나는 훨씬 더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저작물인 *The Literary Message of Isaiah*(이사야의 문자 그대로의 메시지)를 먼저 완성한 후에야 일반 사람들을 위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쓸 수 있었다. 그 책은 학자들이 히브리 예언을 읽을 때 너무도 자주 간과하는 이사야서의 내막, 즉 문학적 장치 내에 끼워진 숭고한 개념을 검토한다. 이 예언서의 기본 구조, 즉 주제, 문학적 패턴, 연결 관념, 핵심 단어 등의 구성을 익힘으로써 독자는 표면상 드러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처럼 히브리 선지자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나면 선지자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이사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걸쳐 우리는 자녀들을 대신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한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모든 국가에서 하나님의 대변자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이 종종 가혹해 보인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계속 자신의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정죄받는 내용의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차가 없으시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행위가 나쁜 행위에 대한 신성한 징계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믿는다.

사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과거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을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밝은 운명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 이상의 의의를 갖는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충실한 백성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이 지상에서의 우리 삶에 명확한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는 즉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돌보며 사랑하는 부모이심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심지어 우리가 하늘로 오를 수 있도록 사다리도 마련해 놓으셨다.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분의 신성한 속성을 몸에 익히고 점차 그분과 같이 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환경을 마련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이 신성한 운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 우리의 진로는 서로 다른 우리의 개성만큼이나 제각각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같을 것이다. 고대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았다. 이사야는 시초부터 종말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위해 확실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1

세계의 종말에 관한 시현

종말적 예언과 고전적 예언의 “예언의 패턴”, 그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및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시현 요소를 연구함. 이사야에서 요한에 이르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호와와 그의 날”이 지닌 특징을 살펴봄. 고대 세계 강대국의 이름을 예언적으로 종말 세계 강대국의 암호명으로 사용하는 실례를 들어 보여 줌. 세계의 종말을 세상의 악한 거주민들의 과멸 및 복천년 평화 시대의 도래로 정의함.

히브리 선지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실제로 아무도 모른다. 선지자들 본인조차도 시현을 보았을 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이 목격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듯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선견자”라고 하는 이들 선지자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고 듣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관해 보았던 것은 그들 이전의 히브리 선지자들이 보고 들었던 것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세계의 종말에 대한 여러 상징적인 시현을 보았다. 시현을 볼 때마다 다니엘은 마치 자신이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듯, 자신이 본 것에 개인적인 영향을 받아 혼란스러워했다. 다니엘이 “사람”으로 묘사한 한 천사는 그가 본 것은 그의 날이 아니라 세계의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니엘이 자신이 본 시현을 기록한 후에 천사는 그에게 두루마리를 봉하고 그의 길을 가라고 지시했다. 천사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세계의 종말 때까지 시현들과 그 해석이 간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예가 있다. 요한은 밧모섬에서 시현을 통해 “주님의 날”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고 들었다. 히브리 선지자들의 글에서 “주님의 날” 또는 “여호와와 그의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위대한 심판의 날이다. 그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는 지상에서 사악한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악을 버린 사람들을 재앙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요한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어느 일요일에 뭔가를 본 것만은 아니다. 그는 실제로 미래로 가서 이전의 선지자들이 보고 들었던 같은 종류의 것들을 보고 들었다.

히브리 예언의 패턴

성경 해설자들은 세계의 종말을 다루는 예언의 글을 “종말적 예언”이라고 한다. 세계의 종말에 관해 구체적이지 않은 예언은 “고전적 예언”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이들 두 유형의 예언은 서로 확연히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종말적 예언은 종말 시나리오를 상세히 설명하며 “마지막 날” 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 다니엘과 요한이 그 범주에 해당한다. 고전적 예언은 역사적 시나리오를 상세히 설명하며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예언한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오바다,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모든 예언 글은 세계의 종말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공통된 시현 요소를 공유한다. 요한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종말적 이미지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등의 이전 예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음녀 바벨론, 용, 짐승, 광야로 달아난 여자, 양, 시온 산에 선 하나님의 종들—요한이 말한 이 모든 것은 그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의 글에 먼저 나타난다. 따라서, 다니엘의 시현과 요한의 시현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시현을 다른 선지자들의 시현과 따로 떼어 볼 수는 없다.

참으로 그러한 모든 시현은 서로를 기반으로 세워지고 서로를 보충한다. 각 시현은 그 자체보다 더 큰 그림의 조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며,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볼 때 의미가 가장 잘 통한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시기에 예언했든, 그들의 시현이 세계의 종말과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공통된 맥락이 이 모든 예언을 연결한다.

예언의 세세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제쳐두고 전체적인 패턴을 살펴보면 예언적 시현의 공통 맥락이 더욱 분명해진다. 모든 예언적 시현을 나란히 놓아 보면, 공통 요소가 자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예언의 핵심 사상을 함께 놓고 봤을 때 개별 시현의 청사진이라 할 만한 원형 시현이 드러난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고전적 히브리 선지자들의 패턴을 고찰하고,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생각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선지자는 저마다 하나님 백성과 세계 여러 나라의 사악함에 대해 말한다. 선지자는 저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잘못을 회개하도록 경고한다. 만일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그의 날”에 모든 땅을 침략하고 파괴할 잔인하고 억압적인 세계 강대국을 북쪽에 일으키실 것이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사로잡힐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고전적 예언의 부정적인 또는 심판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자비로 그분의 백성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이 살아남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세계 강대국이 응보의 일을 마칠 때 그 나라를 끌어내릴 것이다. 잘못을 회개하고 조물주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에서 살아남아 상속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후 악인들이 온 땅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난 후에 복천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고전적 예언의 긍정적인 또는 회복적인 측면이다.

이스라엘 역사의 예언적 패턴

선지자에서 선지자로 전개되는 이 예언의 패턴을 간단히 살펴보자. 이사야 시대(기원전 742~700년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에브라임 지파가 북 왕국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다윗의 집이 남 왕국 유다를 이끌었다. 우리가 논해 온 패턴에 따라 이사야가 묘사한 북쪽의 세계 강대국은 앗수르였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악으로 돌아서자, 이사야 생애 동안 앗수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다른 민족들과 함께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메소포타미아로 끌고 갔다. 이들 사건으로 이사야 예언의 부정적인 측면이 성취되었다.

이사야 예언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이사야가 살던 당시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일부 성취되었다. 다른 일부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시대에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가 세계의 종말이라는 다른 시대에 들어맞게 하고자 이야기를 다듬은 까닭에 고대에 일어난 일들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이전 사건들은 “종말”에 이뤄질 훨씬 더 큰 성취를 예고한다.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세계 사방에서 탈출하여 세계 열국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지상으로 다스리러 오실 때 상속의 땅을 영구적으로 받고 복천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릴 것이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백 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기원전 627~598년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그들의 땅인 남 왕국 유다에 살고 있었다. 그 당시에 북쪽의 세계 강대국은 바벨론이었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및 다른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앗수르의 시나리오를 되풀이했다. 유다 백성이 악으로 돌아서자 바벨론인들은 그들의 땅을 파괴했고,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많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러한 일들로 예레미야 예언의 부정적인 측면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의 긍정적인 부분은 그 시대에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유대인 중 극히 일부만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이는 예레미야의 귀환 예언이 거의 성취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레미야나 다른 어떠한 히브리 선지자도 오직 유대인만이 유배로부터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예언은 유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에게서 예외 없이 성취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예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여러 나라로부터 그 이전이 아닌 “종말”에 귀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때서야 그들은 조상의 땅을 상속받고 복천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다른 고전적 선지자들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낸다. 호세아, 요엘, 미가, 에스겔 등은 당대에 성취된,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예언했고, 또한 “종말”에 성취될 긍정적인 것들도 예언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고전적 예언의 긍정적인 측면이 종말에 이를 때까지 대다수 성취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측면은 어떨까? 종말 예언의 성취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동시에 수반하므로, 고전적 예언의 부정적인 측면이 세계의 종말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이 한 번은 선지자 시대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세계의 종말에 두 차례 성취될 수 있지 않을까?

고전적 및 종말적 예언의 핵심 사상

세계의 종말에 관한 예언인 종말적 예언의 핵심 사상은 실제로 고전적 예언과 본질적으로 같은 다음과 같은 패턴을 구성한다. 하나님의 백성 및 세계 열국이 악으로 돌아서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계 강대국의 손아귀에서 멸망되고 포로가 된다. 반면에,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에게서 구해 내시고 복천년 동안 평화의 시대에 살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언의 긍정적인 측면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에는 언제나 양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필수적인 요소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고전적 예언과 종말적 예언을 서로에게 겹쳐 놓을 수 있다. 두 예언 모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을 예언한다. 하나님의 백성 및 기타 국가들이 악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세계 강대국을 일으켜 그들의 땅을 침범하고 파괴하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게 할 것이다.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복천년 동안 평화의 시대에 살게 할 것이다. 고전적 예언과 종말적 예언 사이에 가장 주된 차이점은 종말적 예언이 전적으로 세상의 종말에 관해 주장하는 데 비해, 고전적 예언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오직 고전적 예언의 긍정적인 특징인 복천년에 관한 내용만이 세계의 종말에 관해 예언된다. 고전적 예언의 부정적인 특징은 선지자들이 살던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에 기반을 둔다.

이제 고전적 선지자인 스가랴와 말라기(기원전 520~445년 무렵)를 알아보자. 그들은 각기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이 있는 이후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살았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 모두 아직 미래인 “여호와와 그의 날”을 예언한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구하실 것이며, 그런 후에 복천년의 평화가 뒤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적 선지자들이 한 이러한 예언은 종말적 선지자들이 세상의 종말에 관해 예언한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한 예언은 또한 이스라엘이 유배되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및 기타 고전적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과 비슷하다. 사건들은 시간상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모든 선지자의 예언 패턴은 같다. 비록 스가랴와 말라기의 시대에 심판의 시간이 과거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들은 멸망과 구원을 모두 예언한다.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호와와 의 날”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 앗수르에 의해 이뤄졌다고 여기고 “여호와와 의 날”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 이뤄졌다고 여긴다.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미래인 “여호와와 의 날”에 관한 스가랴의 예언과 말라기의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인가? “여호와와 의 날”이 여러 개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만 있는 것인가?

예언의 패턴(모든 히브리 예언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핵심 사상)은 모든 예언을 성취할 “여호와와 의 날”은 하나밖에 없음을 알려 준다. 그 “여호와와 의 날”은 여전히 미래의 날로, 그날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시하는 고대의 전례들이 있다. 미래의 위대한 “여호와와 의 날”은 이사야, 예레미야 및 기타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멸망과 구원의 때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여호와와 의 날” 만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모든 예언적 기대를 성취할 것이다. 요한이 보고 그의 책에 암호화하여 기록한 것은 바로 이날에 관해서이다.

암호명으로 작용하는 고대 이름

고전적 선지자들이 자신의 예언이 한 번은 자신의 시대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세계의 종말에 이렇게 두 번 성취될 것을 알았다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히브리 예언의 또 다른 역설을 해결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고전적 예언자나 종말적 예언자 모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강대국이란 관점에서 미래 사건들을 다룬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세계 강대국은 선지자와 동시대에 있던 나라들이다. 또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 이전부터 있었으나 더는 예전의 위상을 갖지 못한 나라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앗수르와 애굽을 당대의 두 초강대국으로 묘사한다. 그는 무력 대결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계 강대국인 앗수르가 애굽을 유린하고 예속시킬 것이라고 예견한다. 사실상 이사야의 예언은 고대에 성취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게 될 세계의 종말 때 그의 예언이 또다시 성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니엘은 당대의 두 세계 강대국이던 페르시아와 그리스 왕국 간의 큰 전쟁을 본다. 그런데도 다니엘의 시현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듯이 그 당시가 아닌, 세계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요한은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을 시현으로 본다. 그 바벨론은 요한의 시대보다 훨씬 전에 존재했던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과 비슷하다. 그러나 요한이 본 것은 분명히 고대 바벨론이 아니라 새 바벨론이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의 이름은 선지자의 시현, 특히 세계 종말에 관한 시현을 이해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미래 세계의 강대국 이름을 문자 그대로 말해 줄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너무 쉬워 사람들이 신앙을 행사할 여지가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말한 세계 강국들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에도 페르시아나 그리스, 이집트 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국가는 고대 국가들과 이름과 위치만이, 아니 어쩌면 민족 정체성 일부만이 비슷할 뿐이다. 오늘날 그들 국가는 선지자들이 보았던 고대 강대국과 비교했을 때 세계 무대에서 비교적 보잘것없는 정치 세력이다. 미래에 대한 선지자들의 시현은 현재의 국명으로 인한 그들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 주요 세계

강대국이었던 그들 국가의 고대 역할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현대 이집트를 고대 애굽과 동일시하거나 현대 이라크를 고대 바벨론과 동일시한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이름을 해석할 또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름을 해석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예언의 패턴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전적 예언에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계 강대국의 정체는 선지자마다 달라지지만, 그 역할은 그대로라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름은 세계 강대국이 수행할 역할만큼 중요하지 않으며, 그 역할은 고전적 예언과 종말적 예언 모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 예언의 패턴에서는 이름이 아니라, 역할이 일정하다. 따라서 종말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선지자들은 모두 같은 북쪽의 세계 강대국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경우에서든 이 세계 강대국의 이름은 종말 세계 강대국의 암호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역할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 고대 세계 강대국의 이름이 종말 세계 강대국의 암호명이라면, 종말적 예언서인 다니엘에 나오는 “북방 왕”을 종말 시나리오와 관련지어 보면, 그는 고전적인 이사야 예언에 나오는 북쪽의 앗수르의 왕과 같을 것이고, 또한 고전적인 예레미야의 예언에 내려온 북쪽의 바벨론 왕과도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야 예언과 예레미야 예언은 당대와 관련 있는 것 외에도 미래의 시간 및 장소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선지자가 주는 정보는 세계의 종말에 대해 훨씬 더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하므로, 그것은 누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선지자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보았던 사람들이므로 당대와 종말이란 두 시대에 맞게 그들의 글에 미묘한 차이를 줄 수 있었다. 그 경우, 미래의 “여호와의 날”이 고대에 있었던 파멸과 구원의 날과 닮은 것처럼, 미래의 세계 강대국도 수행할 역할들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고대의 강대국을 닮을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전 세계적인 심판의 예표

요약하자면, 예언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모든 고전적 및 종말적 예표는 세계의 종말 때에 이중 시나리오가 일어날 것임을 보여 준다. 전 세계적으로 이뤄질 악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은 고대에 일어난 심판과 멸망의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출과 회복은 과거에 일어난 부분적인 구원과 회복의 시나리오에서 예고한 대로 일어날 것이다.

고전적 선지자들은 종말적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종말 때에 이뤄질 하나님 백성의 구출 및 회복을 따로 떨어진 현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하셨을 때,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멸망될 때까지는 그 구출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상속자로서 확인을 받는 일은 그들이 적들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이뤄질 악인의 멸망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또한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개의 사건들이다.

따라서 세계 종말 때에 일어날 하나님 백성의 구출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악한 제도의 엄청난 멸망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요한의 시현에서처럼 억압적인 세계 강대국들의 지배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풀려나게 할 것이다. 그날에 악인이 멸망하여 마침내 폭정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상속의 땅에 영구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천 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누릴 것이다.

종말적 예언과 고전적 예언은 모두 이 이중 시나리오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말적 예언은 직접 세계의 종말을 예언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고전적 예언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예언하지만 예언할 때 주로 역사적 전례나 예표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고전적 예언은 역사를 세계의 종말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여 고대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미래 “여호와와 그의 날”을 예시한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예표론적 차원을 인지했다. 그들은 자신의 예언에 그런 점을 붙박았다. 예를 들어 선지자 스가라는 “앗수르”와 “애굽”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닥쳐올 위대한 파멸과 구원의 날에 무너뜨리실 세계 강대국이라 말한다. 그러나 스가라가 예언을 할 당시에 앗수르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스가라 당대에 이들 국가는 절대 주목할 만한 강대국이 아니었다. 이는 선지자가 고대 앗수르와 애굽을 닮은 미래의 두 세계 강대국이 보일 흥망성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여 주는 한 예이다. 그는 “앗수르”와 “애굽”이란 이름을 단지 암호명으로 사용할 뿐이다.

앗수르와 애굽—초강대국의 예표

이렇듯 예표적으로 국명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그러한 국가들이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전성기에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앗수르와 애굽은 이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스가라가 살던 시대보다 수백 년 전이었다. 모든 히브리 예언이 그 자체의 기반 위에 구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와 같은 이전 선지자들이 “앗수르”와 “애굽”에 관해 무엇을 말했고, 그것을 어떻게 특징지었는지를 살펴보아야 스가라의 예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사야는 앗수르를 북쪽에서 일어난 군국주의적 신생 강국으로, 무자비하고 억압적이며, 그 자체가 법이라고 설명한다. 앗수르는 세계를 지배할 의도를 품고 다른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 영토를 점령하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나라들이 악으로 무르익었을 때 평화를 확립하고자 앗수르가 잠시 나타났다. 그때 “여호와와 그의 날”에 앗수르가 갑자기 새 홍수처럼 창일하여 땅을 휩쓸었다. 이사야에 따르면 앗수르는 모든 땅을 정복하고 파괴했다.

그에 반해서, 애굽은 문명화된, 엘리트 세계 강국이었으나, 이사야 시대에 이르러 쇠퇴하고 있었다. 이사야는 애굽을 근면하나 경제 침체를 겪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이나 급속도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돌아서고 있으며, 땅은 비옥하나 기후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특징짓는다. 세계의 소국들은 마병과 기병으로 이뤄진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앗수르에 맞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보았다. 애굽은 앗수르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 유일한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을 질책하셨다. 그런 종류의 신뢰는 “육신의 팔”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이 그들을 구출해 주실 것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의 종말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계 열국이 사악함에 빠지면 종말의 “앗수르”가 세계의 모든 나라의 땅을 침범하여 멸망시킬 것이다. 앗수르는 또한 그때가 되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쇠퇴일로에 있을 다른 초강대국인 애굽조차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애굽”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는 그 일을 받아들여 그들을 구출할 것이다. 그 후에, 잘못을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복천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구는 낙원의 영광을 입을 것이고, 사람들과 짐승들이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고전적 예언의 이중 관련성

따라서 종말적 예언을 적용하듯이 고전적 예언을 세계의 종말에 일반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역설적인 문제들이 사라진다. 소위 “실패한 예언” 또는 과거에 단지 부분적으로 성취된 예언은 실제로는 종말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이다. 복천년 동안에 누리게 될 평화에 관한 예언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심판에 관한 예언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고대 이름으로 불릴 세계 강대국들은 과거에 그러한 국가가 했던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현대 세계 강대국의 예표이다.

그러므로 종말적 예언이든 고전적 예언이든, 히브리 예언은 모두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을 알려 준다. 그러나 우리가 고전적 예언의 긍정적인 측면은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종말에 적용하면, 세상의 종말에 관해 종말적 예언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그림을 얻게 된다. 우리는 고전적 예언의 주요 부분을 단순히 과거로 밀쳐 버리지 않고 전체를 고려함으로써 종말 사건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2

구조 속에 암호화된 메시지

선지자 이사야가 전체론적 문학 구조를 선지자의 메시지와 신성한 이념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평가함. 어떻게 구조와 내용이 이사야 예언의 두 보완적인 차원을 이루는지 설명함. 이 두 요소는 제각기 이사야의 예언을 해석하는 데 필수적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 고대 근동 문학 및 문화 패턴(애굽, 우가리트, 메소포타미아, 헷, 여부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탐구함.

모든 훌륭한 문학이 그렇듯이 히브리 예언은 그저 1차원적이지 않다. 히브리 예언은 여러 수단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미래에 관한 단순한 예언 이상의 것으로 구성된다. 많은 히브리 선지자의 글은 주도면밀하게 구조화되었다. 이사야서는 이 점을 가장 명백히 보여 주는 예이다. 이사야는 자신의 글에 과거와 미래, 세상의 일과 하늘의 일, 예언과 신학 등 모든 것을 하나로 집약했다.

놀랍게도, 어떤 점에서 이사야와 비교되는 문학은 동화이다. 이사야의 글이 허구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동화는 선과 악의 원형을 다룬다는 점에서 이사야의 예언과 닮았다. 사악한 괴물 혹은 거인은 영웅을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고 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하고자 하는 앗수르 왕에 해당한다. 잔인하고 횡포가 심한 계모는 음녀 바벨론에 해당한다. 음녀는 처녀 시온을 복종시키고 탄압하는데, 여기서 처녀 시온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나타낸다. 요정 대모에 해당하는 존재는 천사들 또는 사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도움으로 그분의 백성이 위기에 처할 때 개입하신다. 왕자는 하나님의 종에 상응한다. 이러한 모든 인물이 이사야의 글에서 또렷하게 특징을 이룬다.

동화 이야기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시련과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영웅 또는 여걸과 관련이 있다. 한편으로 동화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대해 말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시련을 보여 준다. 동시에 동화는 특정 영웅 또는 여걸이 겪게 되는 실제 여행, 역경 및 결과를 그린다. 이러한 의미의 이중 구조는 이사야서에서도 발견된다. 이사야의 영웅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의 종과 같은 개인들에게 적용된다.

이사야서나 동화 모두 참된 행복, 즉 영생과 하늘 영광은 영웅과 여걸이 혹독한

시련과 굴욕의 극한을 경험하는 시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온다는 것을 가르친다. 사실 영웅과 여걸은 자신에게 제시된 더 높은 지혜를 문자 그대로 철저히 따를 때만이 속세를 초월한 행복의 상태를 얻게 된다. 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더 높은 지혜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야기에 나오는 추악한 의붓자매 또는 기타 타락한 인물이 되고 만다. 동화에서 왕자와 공주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궁궐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지는 당연히 모호하지만, 이야기는 그들의 낙원 집이 하늘에도 땅에도 동시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구조와 내용—두 차원

선과 악의 원형과 같은 동화와 이사야 예언의 여러 공통점을 통해 이사야 예언의 문학적 특징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이사야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주요 특징은 책이 구성된 방식에 있다. 사실상 이사야가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구조는 각기 자체적으로 해석적 차원을 형성한다.

작품의 구조는 작가가 자료를 제시하는 순서와 방식, 즉 어떻게 내용을 구성할지를 결정한다. 작가는 관념을 체계적인 전개 방식으로 펼칠까? 누구를 등장인물로 삼을까? 어떤 사람이나 민족을 다룰까? 갈등의 최종 해결책은 있을까? 등등.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으므로, 그분은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와 관련해 영감을 주신다. 그러나 이사야가 그것을 어떻게 말할지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문학적 장치와 기법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내용은 비슷해도, 선지자들이 그것들을 제시하는 방식은 그들의 개인적인 재능과 기량을 반영한다.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되는 중요한 관념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은 내용에 덧붙여 책의 구조를 통해서도 그 자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시나 단편소설 또는 계약서를 쓸 때와는 다른 형식을 사용하듯이, 선지자가 그의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들은 그의 의도에 관해 뭔가를 말해 준다. 하나의 생각 위에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전개하는 구조는 단순한 생각의 연속적인 순서나 사슬과는 다르다. 혼돈과 창조처럼, 주제가 번갈아 반복되는 구조는 도미노 방식으로 함께 연결된 일련의 주제와는 다르다. 교차 구조(ciasm)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구조는 중심 생각이 있고 그 주위에 어떤 면으로든 연결된 주변 생각들이 있다.

이사야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 개별 단어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들 요소는 같은 예언이 품고 있는 뚜렷이 다른 두 가지 측면이다. 옛 속담을 빌리자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사상이나 신념을 뒷받침하는 이사야의 특징 구절을 다룰 때 나무 사이보다는 익숙한 땅에 서곤 한다. 그렇지만 숲의 등고선, 광활함 및 다양함을 좀 더 넓게 본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구조와 내용은 이사야 예언의 서로 불가분인 두 차원을 형성하며, 이는 각기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필수적이다.

오늘날 미국 작가가 다른 문화의 문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스타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듯이, 이사야는 다른 고대 근동 국가의 문학적 패턴을 사용하여 자신의 글을 보강했다. 물론 그의 메시지는 순전히 히브리어이다.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신앙관과 세계관이 독특했다.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적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문학적 패턴을 차용하고 변형했을 따름이다.

고국에서의 문제, 해외 유배, 행복한 귀향

예를 들어, 이사야가 사용한 애굽인의 문학 구조를 살펴보자. 이사야의 시대 수세기 전에 애굽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를 둘러싼 이야기를 엮어 냈다. 고국에서의 문제, 해외 유배 및 행복한 귀향 이 특징인 시누헤의 이야기는 좋은 예이다. 애굽의 왕족인

시누헤는 정치적 음모에 휘말렸음을 알게 된다.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 피신해야만 했다. 고향을 떠나 문화가 다른 외국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면서 시누헤는 경험과 자기 인식을 얻는다. 망명의 날들을 보내며 그는 성숙해진다. 그는 자신을, 다시 말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강렬히 소망한다. 한편, 고국에서의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다. 더는 그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 도리어 그는 호위를 받으며 명예롭게 고국으로 돌아가 높은 직책에 임명된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며, 이사야는 책 전체를 이 3부 패턴으로 표현한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고국에서 곤경에 빠진다.(이사야 1~39장) 하나님께서 사악함 때문에 그들을 세계 각국 전반으로 추방한다.(이사야 40~54장) 그곳에서 그들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경험과 자기 인식을 얻는다. 그들은 참된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자 그릇된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한다. 그 시점에 그들은 호위를 받으며 고국으로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귀향한다.(이사야 55~66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들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천 년 동안의 평화가 시작된다.

역사와 예언의 구분

학자들이 이사야서의 세 가지 역사적 환경을 문학 구조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논란이 일어났다. 어떻게 사람이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유배 이전과 유배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것이 가능할까?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각기 다른 세 시대에 살았던 다른 세 명의 저자들이 쓴 글을 모아 책을 만든 것이 분명하다고 추론했다. 그들은 또한 책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역사적 배경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유배지에서 귀환하는 내용이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러한 가정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아니라 역사가였음을 시사한다.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돌아온다고 예언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가 예언한 것처럼 단지 바벨론에서만 아니라 세계 사방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이 유배지로부터 전혀 돌아오지 않았고, 북쪽의 열 지파 모두가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실패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패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이사야서의 전체론적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학자들이다. 이사야는 문학적 장치를 써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 이전이 아니라 세계의 종말 때에 여러 나라에서 한 무리를 이뤄 탈출해 돌아올 것이라고 밝힌다. 이스라엘이 유배지로부터 돌아옴은 고대 출애굽이나, 바벨론 유수에서의 귀향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이스라엘을 세 가지 다른 역사적 배경으로 그리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 선지자들은 예언한다. 그들은 단지 현재의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사야가 미래를 시현으로 본 사람이라면, 그는 미래를 실제로 본 것처럼 묘사할 것이다. 이 구조는 저자가 여럿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그 역사의 주기적 범위를 이해한 오직 한 명의 저자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이 3부 패턴은 이스라엘이 유배되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지 않음을 말해 준다. 이스라엘이 귀향하면 하나님 계획의 모든 부분이 재개된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나 왕이 살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을 국가가 그 역사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조상 또는 왕은 그의 백성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이를 두고 “하나와 다수의 원리”라고 한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여러 선조는 이사야의 3부 문학 구조에 전례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의 주기를 경험한다. 그의 형인 에서가 그를 죽이고자 할 때, 야곱은 하란 땅으로 달아난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는다. 그는 양 떼와 가축 떼를 얻고 상당한 위상을 얻는다.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부르신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이스라엘 족장의 한 사람으로 상당한 세력을 이루며 살아간다.

배도, 심판, 회복, 구원

이사야가 책을 구성한 주제의 두 번째 주기는 배도(이사야 1~9장), 심판(이사야 10~34장), 회복(이사야 35~59장), 구원(이사야 60~66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사야는 이러한 관념을 전달하기 위해 가나안인들의 4부 구조를 사용한다. 이 4부 구조는 우가리트의 바알과 아나트 신화에서 비롯되는데, 이 신화는 위협, 전쟁, 승리, 축제라는 네 가지 주제의 주기에 기반을 둔다. 이사야는 자신의 예언적 목적을 위해 이 구조를 수정하고 조정한다. 그는 가나안 구조는 유지하지만, 본질은 특히 히브리에 맞는 주제로 바꾼다.

이 구조에서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것을 선택함으로써 어떻게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는지 보여 준다. 창조주께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처럼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맞서 앗수르의 왕을 그들에게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통치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징벌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다시 세우고,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가르치며, 다시 그분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실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히 당부하실 것이다. 그런 후 그들이 그분의 사랑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여호와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이 연속되는 4부 주제는 이사야서에 있는 많은 상세 내용에 가득하며, 또한 개별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이 구조는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 준다. 이 구조는 시초부터 종말을 예견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다면 징벌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악함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속의 땅에 회복시키실 것이며, 오래도록 기다려 왔던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전체론적 구조를 이해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미리 정해진 계획을 따르는지 다시 알게 된다. 이스라엘 역사는 선지자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회복 시기에 재개된다.

위협 1, 위협 2, 위협 3

이사야가 원용한 세 번째 전체론적 구조는 바벨론 문학적 패턴으로, 영웅 또는 여걸이 반드시 맞서야 하는 세 가지 위협 또는 위협의 주기에 기초한 글에서 흔히 나온다. 위협 1(이사야 1~38장), 위협 2(이사야 39~48장) 및 위협 3(이사야 49~66장) 이사야서에서 이러한 위협이나 위협은 하나님의 백성이 복천년의 평화를 상속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세 가지 시험으로 이뤄져 있다. 이스라엘은 시험을 거치며 정련된다. 이스라엘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인다. 동시에 시험은 악행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쫓아 내는 역할을 한다.

앗수르 왕은 책의 첫 부분에서 위협 1을 제기한다. 이스라엘은 앗수르 왕에게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앗수르 왕에게 충성하면 잠시 동안 그 혜택을 누리겠으나 영원한 손실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잠시 어려움은 겪겠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영원히 축복하실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이 파는 물건은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위협 2를 제기한다. 이스라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물질적 쾌락에 집중함으로써 영적 실명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지금은 물론 언제나 축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시험해 보기만 하면 된다.

거짓 형제들은 책의 세 번째 부분에서 위협 3을 차지한다. 이스라엘은 악한 권력자의 압력에 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릴 것인가? 이스라엘이 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편을 든다면, 이스라엘 자신은 공격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단절되는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그분의 이름을 받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조하며 기꺼이 박해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수치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인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배우자로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담긴 저주와 축복

네 번째 전체론적 구조는 헷족 제왕이 제후왕 및 제후국과 맺은 언약과 비교된다. 고대 근동 문헌에 이런 언약의 조건이 요약되어 있다. 언약의 조건들은 제후가 언약에 충실하거나 불충실할 때 따라오는 특정한 축복과 저주를 규정한다. 제후가 언약의 조건을 지킨다면 그 결과로 축복이나 행운이 따를 것이다. 제후가 언약의 조건을 어기면 그와 그의 백성은 저주나 불행을 겪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도 이와 같았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한지 또는 불충실한지에 따라 축복이나 저주가 주어질 것이다. 모세는 행위에 따른 결과를 알게 하고자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축복과 저주를 설명했다.(신명기 28장 참조) 이스라엘은 스스로 한 선택에 따라,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어길지 선택함에 따라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다.

이사야서의 전반부에서(이사야 1~39장), 이스라엘은 언약 저주를 겪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들은 언약의 조건을 어겼고 모든 불행이 이스라엘에게 들이닥쳤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이사야 40~66장) 언약 축복이 우세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축복을 다시 누린다. 이사야는 이러한 두 가지 언약 개념이 책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짰다.

그렇더라도 이 전반적인 패턴에는 예외가 발생한다. 일부 축복은 저주 중에 나타나고 일부 저주는 축복 중에 나타난다. 이러한 예외는 모든 이스라엘이 언약의 저주를 겪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한다. 나라가 온통 사악하고 재앙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로운 자들을 구출하실 것이다. 반면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언약의 조건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사야가 사용한 헷족의 구조를 뒤바꾸었다. 시내 광야에서 모세는 먼저 축복을 규정하고 그런 다음 저주를 규정했다. 하지만 이사야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사정이 바뀌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언약에 불충함을 드러냈고 저주를 겪고 있었다.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된 상태로 데려오고자 역사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회복된 축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악인들의 멸망/의인들의 구조

다섯 번째 전체론적 구조는 이사야의 시온 이념에 기초한다. 그것은 3개의 서로 아주 근접한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인의 멸망(이사야 1~39장), 의인의 구출(이사야 40~66장), 다윗의 후손인 의로운 왕의 중재.(이사야 36~38장) 이 구조는 다른 구조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이사야서를 아우르며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장 근접하게 반영한다. 같은 구조가 여러 개별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사실, 거의 모든 곳에서 시온이라는 이름이 나오며, 이들 세 개념은 한 형태나 다른 형태에서 상호 연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세 개념을 함께 연결하면 이사야가 시온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온(및/또는 예루살렘)이 “여호와와 의 날”에 안전한 장소라는 것이다. 이사야는 그 개념을 둘러싼 전체 이념 또는 일련의 원칙들, 즉 시온 이념을 엮어 낸다. 장소로서의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후 또는 종인, 왕의 의로움 때문에 안전해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존망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한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언약의 조건에 충실함을 입증하면, 백성이 왕의 법을 지켜 왕에게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을 모두 멸망에서 구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및 그의 후계자들과 이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이를 다윗의 언약이라고 한다.

다윗의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개념이 함께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왕의 충성과 왕에 대한 백성의 충성을 시험대에 올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의 안전이 악한 세계 강대국에게 위협을 받는다고 하자. 이 경우 왕은 하나님의 충실한 제후이자 종으로서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탄원한다. 만일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시온에 거하는 백성을 구출하신다. 다시 말해, 백성들의 안전은 그들을 대신한 왕의 중재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달려 있다.

이 3부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에 앞서 시온(살렘 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족에게서 유래했을 수도 있다. 여부스족은 의로운 대제사이자 그 도시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다. “의의 왕”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처럼, 여부스 왕들도 자신의 이름에 “의로운” 또는 “의”라는 말을 포함했다. 다윗 시대의 여부스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도시를 점령하기 전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몸소 다윗 왕과 그의 상속자에게 의로운 제사장-왕의 모범이 되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정당화되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다윗 왕의 의로운 후손이었다. 그의 시대에 앗수르 군대 십팔만 오천 명이 시온 혹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시킬 것이라고 겁박했다.(이사야 36장)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충신했고 백성은 히스기야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구해 달라는 왕의 호소를 들으셨다.(이사야 37~38장) 하나님의 천사가 앗수르 무리를 역병으로 치자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원수를 멸망시켜 그들을 구출하셨다.

이사야의 문학 구조를 통해 신성한 계획이 드러남

이사야가 사용한 이러한 구조들과 기타 여러 전체론적 구조를 고려할 때, 여러분은 이사야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풍부하게 하려고 어떤 놀라운 기법을 사용해 전개하는지 알아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사야는 자료를 조직하기 위해 다양한 고대 근동 문학 구조를 원용할 뿐 아니라 겹겹이 놓는다. 이사야는 책 전체를 그 구조로 둘러싸서 구성한다. 책의 내용 중 대다수는, 특히 나중 장들은 그러한 구성 패턴을 수용하도록 쓰였다.

이런 중첩된 문학적 구조를 분석하면 할수록 세 명의 저자가 서로 다른 시대에

졌다는 생각은 더 불합리해 보인다. 여기 여러 다른 각도에서 제시된,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일관성 있는 시현이 있다. 그 시현의 숭고하고 광범위한 범위는 모든 역사에 걸쳐 이어지며, 이 세상 끝까지 이어진다. 그 시현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인간의 경험을 하나의 긴 연속체 내에서 올바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과거를 훨씬 넘어 미래의 복천년 평화 시대로 투사한다. 왜 사람들은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초점을 한정하고 이사야 시현의 전체 의의를 파악하지 않는 것일까? 이사야서의 이 정교한 구조화를 공부하며 그 예언적 메시지를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사야의 여러 구조는 제각기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이해하는 신성한 메시지인 이 메시지의 일부를 숨기거나 드러낸다. 그저 한 사람의 희망에 찬 낙천주의를 단순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계획을 펼쳐 낸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속량하고자 하심을 알 수 있다. 이사야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인간 운명의 키를 잡고 계심을 증거한다. 이사야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심을 확인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황금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예언한다.

3

역사의 주기적인 반복

이사야는 고대 사건들을 새롭게 예언하여 어떻게 시초부터 종말을 예언하는지 보여 줌. 원문 전반에 걸쳐 새로 쓴 고대 사건들을 도미노 방식으로 함께 연결할 때 명확히 드러나는 종말 사건의 암시적 순서 또는 연대기를 밝혀냄. 고대 사건들이 “여호와와 그의 날”이라는 그 자체적인 사건의 고유한 순서에 따라 반복될 때 세계의 종말이 이스라엘의 과거에 들어 있음을 밝힘.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려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신다.]”(이사야 46:10) 그 말은 선지자에게서 나온 명확한 말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쉬운 말로 예언하신다는 의미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다차원적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역사 자체를 조율하여 끝을 예고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일어난 일이 종말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종말”, 즉 세상의 종말은 “시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예고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율하여 이스라엘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세계의 종말에 되풀이되게 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실, 이사야가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모든 것에는 과거 전례 또는 예표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사야는 사실 새로운 것을 전혀 예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그의 전체 시현은 고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새로 쓴 종말 사건들의 형태로 이뤄진다.

인류 역사가 이같이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라고 이사야는 선언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그 방식으로 예임하실 수 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것을 미래에 하실 것이라는 진실은 종말을 경험할 사람들에게 지식의 근원이 된다. 그 진실은 어지러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한다, 즉 그것은 혼란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는 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

과거는 미래를 예시함

이스라엘의 과거에 익숙해지면 미래에 다시 일어날 많은 종류의 사건들에 정통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아다녔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았던 이야기를 다시 실현하게 될 때,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사건에 대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사야는 모든 일이 한때 일어났던 그대로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다시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 과거 사건 및 당대의 사건들의 일부분을 선택한다. 이사야 혼자만 이 기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이 한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흠으셨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새롭게 탈출시킬 것이라고 예언한다. 예레미야는 새 탈출이 옛 탈출을 훨씬 능가하여 옛 탈출이 더는 기념되지 않고 새 탈출만 기념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에스겔과 호세아는 옛날과 비슷하게 새로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사건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는 일이 “종말”, 즉 세계의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사야는 옛 사건으로 패턴을 형성한 새로운 사건들을 명확하게 단계별 순서대로 기술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책 전반에 걸쳐 암시적인 순서 또는 연대기를 생성한다. 그는 사건들을 함께 도미노 방식으로 연결하여 이 순서를 만들며, 여러 차례 같은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다른 조합으로 예언한다. 이러한 조합으로 처음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일부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새 탈출을 생각해 보자. 이사야는 그의 책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바벨론에서 하게 될 탈출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이뤄질 탈출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책의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 바벨론에서 탈출한 후에 새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바벨론”, 즉 세상과 그 사악한 거주민을 앗수르의 왕이 “여호와와 그의 날”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밝힌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 세계적인 멸망의 시기에 지구 곳곳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방 땅끝에서 탈출하여 시온으로 올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든 나라에서 떼지어 몰려나와 시온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시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영광의 구름으로 덮개를 만드실 곳이라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날” 또는 “종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세계 종말에 관한 시간 틀을 제공한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 시온에서 영원한 상속의 땅을 받을 것이다.

과거 사건들의 미래 연대기

이렇듯 사건들을 도미노 방식으로 연결하고 서로 관련시키는 그 자체가 이사야가 사용한 문학적 구조 중 하나이다. 이사야는 그 수단으로 새로 쓴 모든 고대 사건을 하나의 순서로 상호 연결한다. 그러나 책의 연대기는 명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과거 일들을 임의로 모아 놓은 것이라고 추측한다. 우리는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다른 시대의 부분들과 조각들을 자주 다루고 있는데, 그 역사의 부분과 조각들은 동떨어져 보이는 구절에서 함께 거론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사야는 실제로 이러한 조각들을 모아 전혀 새로운 예언을 빚어냈다. 그 예언은 책의 모든 부분을 함께 연결하는 데 놀라운 내적 일관성을 보이며, 앞으로 올 중요한 때를 상세히 설명한다. 많은 사건을 여전히 미래의 시간 틀에 하나의 순서로 연결하는 개념은 약간 익숙해져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조각을 함께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사건들의 대략적인 연대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사야의 새로운 사건 연대기는 고대에 일어난 사건들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한 예를 들자면, 새로 쓴 사건은 과거와 다른 순서로 일어난다. 또 다른 차이는 옛 사건이 수 세기에 걸쳐 일어난 데 비해, 새 사건은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다. 이사야는 전체 도미노 순서를 “종말”에 연결해서, 새로 쓴 고대 사건이 세계의 종말에 일어날 것을 알려 준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이러한 사건 중 다수가 “여호와와 의 날”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밝힘으로써, 종말 때에 있을 “여호와와 의 날”의 정확한 때를 밝힌다.

이사야의 암시적 사건 순서에서 맨 먼저 일어날 일은 이스라엘의 배도 또는 패역이다.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 읽으면서, 이사야가 정확히 누구에 관해 말하고 있는지, 고대의 이스라엘인지, 아니면 종말의 이스라엘인지 이해해야 한다. 고대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세계 각국으로 추방하셨을 때, 먼저 열 지파를 추방한 후에 유대인을 추방하셨음을 유념하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흩으신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유대인 스스로가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또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앗수르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은 백성이 동화되었든 동화되지 않았든 간에 모두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종말 이스라엘은 열국 가운데 어디에서 살든지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의 후손들로 이뤄진다.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은 두 가지 유형의 종말 이스라엘을 다룬다. 첫째 유형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로, 그들은 수 세기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둘째 유형은 각 나라로 동화된 사람들로, 그들은 지금 이방인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민족적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화된 이스라엘”이라고 칭할 수 있다.

하나의 예표인 고대 이스라엘의 배도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배도 및 패역을 새로 일어날 일련의 종말 사건에서 맨 앞에 둔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 즉 이사야 시대가 아니라 “종말”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건을 어긴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새로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지른 악행의 유형에서 이스라엘의 고대 배도와 매우 흡사하며, 따라서 중요한 역사적 예표를 제공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이 히브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결혼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본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정을 멈추고 당신께로 돌아오면 곧바로 그녀를 되찾고자 하신다.

이사야는 이 결혼 이미지를 두 여인에 적용한다. 한 여인은 “민족적 이스라엘”로, 과거에는 버려졌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시 결혼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다른 여인은 “동화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결혼하셨으나 지금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상징한다. 두 여인은 모두 그들의 남편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다. 첫 번째 여인은 하나님을 고대에는 거부했으나 지금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두 번째 여인은 최근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 무리가 이스라엘의 종말 배도의 주체인 부정한 아내이다. 이 두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전 세계에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한 부류는 종말에 하나님을 거부한다. 간략하게 말해서 부정한 아내는 현재 이방인으로 알려진 동화된 이스라엘 혈통인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민족적 혈통을 대신하여 그녀와 결혼하셨다.

이사야에 따르면 이스라엘 배도의 주된 원인은 불의와 우상 숭배라는 두 가지 죄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는 억압받고 많은 사람들이 결핍에 시달린다. 그들의 사회 전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 보복과 살인은 다반사이다. 이사야는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맹렬히 비난한다. 그들은 소돔의 지도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극악하게 부도덕해져 고모라의 거주민이 되었다.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아침하고 거짓을 가르쳐 그들의 굶주린 영혼을 텅 비게 만들었다. 돈과 돈으로 사는 물건이 사람들의 신이 되었다.

이런 거짓 신들은 “여호와의 날”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다. 바벨론에 남아 우상에 매달리는 모든 사람은 옛날의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그러셨듯이 바벨론과 그 우상들을 완전히 파괴하실 것이다.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악인들과 죄인들을 지면에서 완전히 없애실 것이다.

종말- 악인들에 대한 최후 심판의 날

내 나름대로 이사야의 암시적인 연대기를 짜 맞춰 보니, 세계의 종말을 묘사하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나타난다. 이사야 예언의 부정적인 측면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시작해 보자. 하나님의 백성이 배도한 결과로, 재앙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불시에 세상에 닥칠 것이다. 재앙은 북쪽에서 홍수처럼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불과 전쟁으로 정결하게 하실 것이며 세계의 거주민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앗수르의 왕(바벨론의 왕이라고도 함)이 나라들을 흔들고 두려움에 빠트릴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 할 것이다. 그는 평화를 가장하며 열방을 속이다가 비겁하게 갑자기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거센 물결이 쇄도하듯이 그의 군대가 모든 나라를 침략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서 온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쇄도하는 채찍과도 같이 그들이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참혹한 파괴와 참사만 남을 것이다. 그들은 온 세상을 황무지로 바꿀 것이다.

앗수르의 왕은 사람들을 발아래 짓밟으며 정복한 나라들을 잔인하게 억압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모든 땅을 합병시킬 것이다. 또한, 국가 간의 경계를 없앨 것이다. 그는 세계 만민을 오직 자신에게 복속시키고 스스로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는 신이라도 되는 듯, 구름 위로 올라 하늘 높은 곳에 자신의 보좌를 두고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길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날은 분노와 진노가 잔혹하게 쏟아질

날이다. 하늘에서는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땅은 썩 벌어져 용암이 흐를 것이다. 지구는 궤도에서 요동치며 술주정뱅이처럼 비틀거릴 것이다.

도시 전체가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리는 먼지가 될 것이다. 도시들은 우레와 같은 지진과 휘몰아치는 폭풍,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키는 대화재로 소멸할 것이다. 사라져 가는 도시 위로 버섯 모양의 연기구름이 솟구칠 것이다. 지구는 초토화되고 사람들은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높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산들이 없어질 것이다.

어둠의 장막이 마치 상복처럼 지구를 덮을 것이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을 감출 것이다. 치유할 수 없는 온갖 역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벌레처럼 죽어 나갈 것이다. 사람들의 시체가 길거리의 쓰레기처럼 땅을 덮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황 속에 빠진 채 달아나 아무것도 없이 궁핍 속에 살 것이다. 사람들은 동굴 같은 지하 은신처에 숨어 제때 회개하지 않았음을 애통해할 것이다. 그들의 사회 전체가 타락하여 혼란과 무질서, 무법이 땅에 난무할 것이다.

앗수르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여러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앗수르인들은 전쟁을 벌여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군대를 궤멸시킬 것이다. 앗수르인들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 무거운 짐을 멍에로 지울 것이다. 앗수르인들은 애굽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때로 치며 굴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사랑에 응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속박될 것이다. 그때 앗수르인들은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고 항복할지 멸망할지 선택하라고 명할 것이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셨듯이 시온산에 내려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포위한 앗수르 군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불로 사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앗수르인들은 공포에 떨 것이며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이사야 예언의 부정적인 측면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서 긍정적인 측면인 의인의 구출로 관심을 돌려 보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재앙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충실함을 입증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한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구출하시는 일은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다수 사건이 앞에서 언급한 사건들과 겹쳐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사건이 추가되고 연결되어 이 종말 시나리오를 채울 것이다.

의인들을 위한 복천년의 평화

악인이 공포와 사로잡힘, 멸망을 겪듯이, 전혀 다른 경험이 악을 회개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들은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 유배에서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흩으셨듯이 그들을 다시 모든 나라에서 본향으로 모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이 친족과 친지들을 뒤로하고 약속의 땅에 온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모든 땅끝에서 모여든다. 롯과 그의 딸들이 불에 타 황폐해져 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 달아났듯이, 이들도 나라들이 황폐하게 되기 전에 모든 나라에서 겨우 탈출하여 올 것이다.

파괴의 천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쳐 갔듯이 그들을 지나쳐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압제자들을 멸망시켜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것이다. 그들은 출애굽 때처럼 대규모로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요소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을 지나, 바다를 지나, 강을 지나 걸어갈 것이다. 그들은 옛적과 마찬가지로 광야와 사막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산맥을 따라 돌아오는 길이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을 샘물가로 인도하시고 먹을 양식을 제공하실 것이다. 태양의 열기가 그들을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야생 동물이 그들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영광의

구름이 애굽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보호했듯이 그들을 가려 주고 보호할 것이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탈출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고대에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성지 순례를 하던 것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구출하신 사람들은 본향을 향해 행진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산을 향해 이동하며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다.

그들은 세계의 종말에 슬픔과 고난을 뒤로하고 시온으로 기뻐하며 올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서, 조롱 당하고 부끄럼을 당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강탈당하고, 억압받고, 부당하게 대우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위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듯이 그들을 이끌 구원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 구원자는 모세처럼 압제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나라에서 불러내어 시온으로 오도록 할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그들 가운데 정의와 의를 세울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일은 일출 전의 새벽빛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기름을 붓고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재건하고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유산의 땅을 지정해 줄 것이다. 그는 다윗처럼 에브라임과 유다를 결속시킬 것이다. 그는 고레스가 한 것처럼 여러 나라의 땅을 회복할 것이다. 그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것처럼 침략한 앗수르 군대를 전투에서 물리칠 것이다. 그와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과 그곳의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황폐한 도시들을 복원할 것이다. 그들은 상속의 땅에 다시 정착할 것이며 거기로부터 세상의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의로운 판사와 지도자들을 임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몸소 여호와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사랑 넘치는 그분의 존재는 마치 태양 빛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러셨듯이 그분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인 무조건적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시온에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땅을 재창조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낙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대에 그들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오랜 세월을 살며 복천년의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같이 과거 사건들을 함께 연결하여 일련의 종말 사건들을 만들어 보면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와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그날은 고대 사건을 본뜬 새로운 사건의 주기로 구성되며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이해한다.

이사야의 도미노 구조는 이사야서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고 설명한다. 그 구조는 단일 종말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참으로 일단 실행되면 새로운 사건들의 전체 순서가 도미노 효과처럼 연속적으로 빠르게 펼쳐진다. 이사야의 전체론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별도의 조각으로 나눈 후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각 조각을 과거의 일부 사건에 지정하는 것보다 큰 그림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이사야 43:18~1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운

백성이 알지 못할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예전에 하셨던 일을 하실 것이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미래가 과거에 포함되어 있으니, 과거에서 미래에 관해 배우자!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전도서 1:9~10)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 및 개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조상들 및 다윗 왕과 맺은 언약들을 분석함.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제왕-제후 언약의 전신, 언약의 조건적 측면과 무조건적 측면, 신성한 보호 조항 등에 주목함.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 및 개인들과 맺는 관계가 정의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기대하시는 그대로, 그분 스스로 언제나 자신이 맺은 언약의 틀 안에서 역사하신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대나 종말에나 그분이 행하시는 언약 관계에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도, 그분의 행동은 그러한 개입의 경우를 만드는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다.

조건적 언약과 무조건적 언약

시내 언약,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시내 광야에서 맺은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었다. 다시 말해, 그 언약의 축복 또는 특권은 언약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획득해야만 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저주가 뒤따랐다. 시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과는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무조건적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사로 축복과 특권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런 언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하고 나서야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각 조상을 시험에 부치셨고, 그들 각자가 시험을 통과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의 축복은 약속의 땅, 계속되는 후손 및 하나님의 보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자손이 세세 영원토록 계속되고 늘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들의 후손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자녀를 죽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셨다. 이스라엘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들”인 모세를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의 구원자로 키우셨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국가로서 시내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낮은 영적 및 현세적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 즉 그들 조상과 같이 높이 들린 지위로 올리는 데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모세를 통해 기적을 동반하여 하나의 국가인 이스라엘을 또 다른 국가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어떤 의미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귀하게 하고 고양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하여 특별한 환경을 만드셨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국가에 대한 본보기로, 즉 당신이 모든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로 삼고자 하셨다.

출애굽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권리나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던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은 어떠한 언약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언약에 따른 어떠한 축복도 요구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데리고 나오셨다.

언약을 맺는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왜 그토록 이례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으며, 왜 그러한 사건이 경전에 그토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실 일에 대한 역사적 전례를 확립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은 언약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고 언약의 틀 안에서 일어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언약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으로 상속의 땅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그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었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스라엘은 다른 여느 호전적인 국가와 같았을 것이며, 스스로 심각한 위협에 빠졌을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한 언약의 축복으로 그 땅을 얻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국가로서 맺으신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을 방편이 마련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고대 근동 제왕-제후 언약 간의 유사점은 하나님의 언약이 갖는 본질에 대해 통찰을 더해 준다. 고대 근동의 언약 문헌들을 통해 성경의 문화적 배경에서 당연시되었던 많은 것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동의 제왕과 제후왕 간에 맺어진 언약에서 제왕은 제후왕의 “주군”과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제후는 제왕의 “종”과 “아들”의 역할을 했다. 이 봉건 제도 아래에서 제왕은 제후왕에게 영지(약속의 땅)를 하사하여 다스리게 했다. 제후가 제왕의 율법이나 언약의 조건을 지켰을 때 그 결과로 행운이나 언약의 축복이 따르기도 했다.

제왕은 충성스러운 제후와 그의 백성이 존망을 위협받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충성스러운 제후를 위협하는 외부의 세력은 제왕과 제후에게 “공동의 적”으로 간주되었다. 제후가 제왕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제후는 제왕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제후가 제왕에게 불충하면 필연적으로 재앙이나 언약의 저주가 내려졌다.

또한 고대 근동의 제왕들은 때로 국민이나 국가와 직접 언약을 맺기도 했다. 그 경우, 국민이나 국가가 제왕의 “종” 또는 제후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하나님의 “종” 또는 제후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을 스스로 책임지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언약을 맺으신 것 같았다. 여기서는 그 “개인”이 국가 전체였다. 국가 전체가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실하기만 하면 언약의 모든 축복과 특권이 그 국가의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내의 누구라도 불충하면 언약의 저주가 뒤따른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국가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조건을 지키기까지 시내 광야에서 40년이 걸렸다.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그분께 충실하다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보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이라는 언약의 관점에서 자신이 그들의 조상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하나님, 전능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임을 보여 주셨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세가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되었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일은 그들의 조상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는 별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후 하나님의 언약 축복은 즉시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체가 국가로서 스스로의 상황을 통제할 것이다. 그런 후 이스라엘이 또한 선택한다면, 앞으로 나아가 조상들과 같은 특권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무조건적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분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내의 개인들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시내 언약은 그 목적을 위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보내신 것 또한 이스라엘의 조상들 때문이었다. 고대 근동에서 제왕에게 불충한 것으로 판명된 제후에게는 언약의 재앙 또는 저주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처럼, 그와 같은 저주는 또한 충실한 제후의 권리를 침해한 누구에게라도 내려졌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그 자녀들을 죽임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권리를 침해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그들의 후손은 계속되었고 늘어 갔다. 바로 그 후손을 이제 애굽인들이 위협에 빠트린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나라에도 재앙이나 저주를 가져오신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함

시내 언약의 이점은 분명했으나, 국가로서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겪은 모든 경험은 끊임없이 범죄자들을 쫓아 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자마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언약의 저주로 멸망하지 않은 것은 오로지 모세가 개입했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빌려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런데도 죄를 지었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맺었던 다른 두 언약들의 조건을 지켜야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가해야 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보전해야만 하셨다.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다닌 후에 약속의 땅을 물려받은 이스라엘 신세대는 하나님께 국가로서 충실했다. 모세는 모두가 언약의 조건을 지키게 하고자 그들에게 언약의 율법을 가르쳤다. 언약의 축복은 이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들은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변함없이 충실하기만 하면 그들의 후손이 땅에서 늘어나고 번성할 것이다. 어떠한 외부의 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 모든 조건 아래에서 충실함을 입증해 보이는 것을 어떤 힘도 막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잠시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실하면 더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 예고됐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면서 보호하심을 상실한 일이 일어났다. 한 이스라엘 병사가 불법으로 전리품을 취하자 이스라엘 전군이 좌절을 겪었다. 그 병사는 자신의 범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협에 빠뜨렸다. 백성들이 그 범죄자를 찾아내어 죽이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보호해 주셨다. 그 사건에서 다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기꺼이 축복하시고자 하나 그 축복은 전적으로 그들이 국가로서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

상상할 수 있듯이, 온 국민이 완전히 충실함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했으므로 이스라엘은 부주의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언약의 조건을 지키는 대신, 그들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약의 축복이 사라지고 언약의 저주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약점을 목격할 때마다 공격했고, 그 시점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적으로부터 구해 주셨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조건을 어겼으므로, 원수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정복될 입장에 놓였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이스라엘은 파괴되고 노예가 될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길을 바로잡으려고 더는 노력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의 왕의 역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시점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더는 국가로서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숨통을 끊어 놓으려니와 찰나였다. 그래서 장로들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분열된 부족들을 결속시키고 적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이끌 왕을 기름 부어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한동안 백성들을 다스렸으나 그들은 결코 완전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주된 염려는 백성들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었다.

사무엘의 첫 반응은 정치적으로 옳았다. 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제왕)이시라는 것과, 이스라엘은 그분의 제후임을 상기시켰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또는 언약의 조건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중”에게 존망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를 도우러 오셔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께 충실하기만 하면 “공동의 적”을 전멸시킬 것이다. 인간 왕을 요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마주한 선택 사항은 제한적이었다.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다시 하나님께 완전히 충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정도의 충실함에 이르려면 특별한 상황이 다시 생겨야 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그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두 세대에 걸쳐 가르쳤었다. 지금쯤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왔고 적에게 전멸되지 않으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는 그 언약에 호소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얻어야 할 책임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계획,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회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맺으신 언약들을 폐지하지 않는 계획이 필요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이 그 상황에서 반드시 선지자일 필요는 없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로 결속하여 이끌 카리스마 넘치는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다시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동의하셨고 사무엘에게 지시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다시 산고를 겪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아들”인 이스라엘 왕을 낳았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불충한 것으로 판명되어 총애를 잃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죽은 사울 대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셨다.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언제나(나중에 일어난 우리야의 문제는 제외)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해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이스라엘에 예속시켜 더는 위협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

다윗이 모든 조건에서 충실함을 입증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한 “사랑”의 징표로 그와 함께 무조건적 언약을 맺으셨다. 다른 무조건적 언약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의 땅과 자손이 계속될 것을 보장하셨다. 이 언약은 고대

근동의 제왕들이 맺던 언약과 유사했다. 그러한 언약의 한 종류를 “하사 언약”이라 한다. 제후왕이 모든 조건에서 제왕에게 충성함을 입증하면 제왕은 그와 하사 언약을 맺곤 했다. 그러한 언약은 제후에 대한 제왕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으로 값없이 주는 은사였다. 이 언약의 조건에 따라, 제왕은 제후의 “주군”일 뿐 아니라 제후의 “아버지”로도 알려졌다. 제후는 제왕의 “종”일 뿐 아니라 제왕의 “아들”로도 알려졌다.

하사 언약에서는 제후가 모든 조건에서 제왕에게 충성함을 입증해 보인 후에, 제왕은 제후에게 땅을 하사하여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다스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제왕은 제후가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제후와 그 백성의 존망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도 그들을 보호했다.

제왕은 “만군의 주”로서 “공동의 적”을 전멸하기 위해 자신의 상비군과 제후들의 군대를 집결시켰다. 반면에 제후의 상속인 또는 통치하는 후손이 불충한 것으로 판명되면, 제왕은 그를 제왕에게 충성하는 후손으로 대체하곤 했다. 그리하여 제왕은 그가 약속한 대로 제후의 혈통 및 백성을 보존할 것이다.

고대 근동의 하사 언약이 지닌 이런 각각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에 적용되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과 “아들”로 알려졌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님”이자 “아버지”로 불렸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할 상속자의 혈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과 그들이 살 땅을 보장하셨다.

또한, 제왕-제후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변함없이 충실하기만 하면 왕과 백성을 모두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반대로 왕이 불충하면 왕은 자신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잃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역병으로 수천 명이 죽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에게 좋은 나쁜든 간에 이스라엘의 명운이 걸려 있었다. 다윗과 그 뒤를 이어 통치한 후계자들은 이스라엘의 대리인으로서 사실상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은 비록 무조건적이었지만 그 언약의 보호 조항은 여전히 조건적이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왕이었으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원수에게서 구해 내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다. 사실상 다윗 왕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제왕이 되었다. 한편으로 그들은 “주님”과 “아버지” 또는 제왕의 역할을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종”과 “아들”, 즉 제후왕의 역할을 수행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자신의 “종”과 “아들”로 소임을 다하는, 자기 제국의 제후왕에게 “주군”과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했다.

다윗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꿔놓았다. 이스라엘은 존망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 이제는 시내 언약의 조건을 지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필요가 없었다. 이스라엘에게는 단지 왕의 법을 지켜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또한 왕이 하나님께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은지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요동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모든 것은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에 달려 있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지위를 얻는 단계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대신에 이제 한 걸음 더 멀어졌다. 이스라엘은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성함을 입증하는 대신에 그것을 왕에게 맡겨 버렸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배된 이스라엘

다윗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충실한 왕은 거의 없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달아나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왕국은 둘로 나뉘었다. 북 왕국의

어떠한 왕도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다. 남 왕국의 왕들 가운데 충실한 자가 너무도 적었기 때문에 다윗 가계가 통치한 지 수 세기 만에 모든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추방되었다. 앗수르는 북 왕국 이스라엘을, 바벨론은 남 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실했다.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 일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들의 민족적 혈통을 보존했다. 다른 대다수는 여러 민족에 동화되어, 그 민족과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동일시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무조건적이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한 명의 후손 또는 여러 명의 후손이 언제나 있을 것이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당시에 살았는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예레미야는 밤과 낮이 계속되는 한, 다윗의 상속자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으리라]”(예레미야 33:17, 20~21)

에스겔은 유다의 추방에 대해 예언하며 우화를 들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속자들을 다른 여러 땅에 옮겨 심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곳에서 유배 중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다시 명성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깎아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깎아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에스겔 17:22~24) 아마도 이러한 예언은 왜 세계에서 일부 명망 높은 왕가의 계보가 다윗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설명해 준다. 이들 예언은 또한 첫 번째 약속의 땅 외에도 다른 약속의 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천년 언약을 맺으심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모든 언약의 실타래를 집어 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언한다. 이사야는 세계의 종말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다시 특별한 환경을 만드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런 후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국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모든 조건에서 충실함을 입증하면, 그들과 무조건적 언약인, 하사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들은 지구가 복천년의 평화를 누리는 시기에 축복을 누리며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천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맺으신 모든 언약을 종합한 것으로, 모든 긍정적인 특징을 간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국가로서 시내 언약과 같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에서처럼 당신의 백성에게 값없이 주는 은사로 영원한 상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듯이 세계 영원토록 그분 백성의 후손을 영속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 언약의 조건에서 그러하셨듯이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원수에게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레위인들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듯이 전 세계에서 악한 자들을 멸망시킨 후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종말” 때 산고를 통해 또 다른 “아들”, 곧 다윗의 충실한 상속자이자 후손인 구원자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여호와께서 지상에 다스리러 오시도록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는 모세가 시내 언약을 중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중재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에서 탈출하여 안전하게 시온으로 오도록 이스라엘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는 고대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뤄진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앞에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증거로 언약의 백성을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5

시온과 바벨론의 이념

7쌍의 상반된 주제가 내포된 이사야의 공존 구조를 살펴봄. (1) 파멸 및 재탄생, (2) 패역 및 준수, (3) 징벌 및 구출, (4) 굴욕 및 승영, (5) 고난 및 구원, (6) 불충 및 충성, (7) 폐적(廢嫡) 및 상속.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계 종말의 비유로 사용하고 두 상반된 이념을 고려한 구원과 승영의 신학을 가르친다고 결론지음.

나 스스로 그 열쇠를 발견하는 과업을 맡았기에, 나는 이사야서에서 발견했던 내용의 일부를 설명했다. 여러분은 내가 왜 그것들에 대해 신나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발견은 히브리 예언 전반과 특히 이사야서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었다. 그러나, 최고의 발견은 더 남아 있었다. 그 최고의 발견은 윌리엄 브라운 리가 했는데, 그는 사해 두루마리 가운데에서 발견된 이사야 문서를 연구한 성서 학자였다. 이사야의 사해 두루마리인 1QIsa^a에는 그가 구조적인 패턴을 찾도록 이끈 독특한 특성이 있었다.

브라운 리는 이사야서가 두 개의 절반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은 33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각각의 절반은 각기 일곱 부분으로 나뉘었다. 전반부의 일곱 부분은 후반부의 일곱 부분과 그 내용 및 장르에서 일치했다. 브라운 리는 이 분할은 그저 기계적인 종류의 구조, 즉 본문을 대구 방식으로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는 그 구조를 분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개요를 언급만 했다.

이사야의 7부 문학 구조

윌리엄 브라운 리의 발견은 참으로 중대한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는 생전에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친구이자 나의 지도 교수인 알 케이 해리슨 교수는 내게 박사 논문으로 이 7부 구조를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나는 그렇게 했고, 그 구조가 다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전에 발견했던 모든 것이 하나로 묶였고 내가 전에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의 보고가 드러났다. 그 구조로 인해 히브리 예언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

책의 전후반부에 나오는 각각의 일곱 부분마다 한 쌍의 상반 주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책의 전체 내용이 구성되었다. (1) 파멸 및 재탄생(이사야 1~5장, 34~35장), (2) 패역 및 준수(이사야 6~8장, 36~40장), (3) 징벌 및 구출(이사야 9~12장, 41~46장), (4) 굴욕 및 승영(이사야 13~23장, 47장), (5) 고난 및 구원(이사야 24~27장, 48~54장), (6) 불충 및 충성(이사야 28~31장, 55~59장), (7) 폐적 및 상속(이사야 32~33장, 60~66장).

책의 전반부에 나오는 주제의 일곱 쌍은 후반부에 나오는 주제의 일곱 쌍과 일치했다. 그렇다면 이 예언적 주제의 구성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이것은 마치 전혀 새로운 예언서를 발견한 것 같았다.

나는 히브리 선지자들이 대구를 이루도록 글을 구성하여, 같은 것을 두 번씩 말하고, 두 번째 표현을 첫 번째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방식은 그들이 사물을 정의하는 데 유용했다. 게다가, 대구법의 한 종류인 교차 구조는 보통 핵심 관념을 중앙에 두고 역순으로 반복한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구절의 가—나—가 교차 구조를 관찰해 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가—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나—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가(이사야 60:1~2)

나는 이사야 7부 구조의 처음 세 주제 쌍이 마지막 세 주제 쌍과 역순으로 대구를 이루며, 서로 대칭 이미지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전체론적 구조 자체가 교차 구조이고,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사상은 굴욕 및 승영이라는 주제 쌍이었다.

가—파멸 및 재탄생(이사야 1~5장, 34~35장)

나—패역 및 준수(이사야 6~8장, 36~40장)

다—징벌 및 구출(이사야 9~12장, 41~46장)

라—굴욕 및 승영(이사야 13~23장, 47장)

다—고난 및 구원(이사야 24~27장, 48~54장)

나—불충 및 충성(이사야 28~31장, 55~59장)

가—폐적 및 상속(이사야 32~33장, 60~66장)

굴욕 및 승영은 또한 내가 발견한 첫번째 구조의 중심 주제였다. 이 구조에서는 14장에 나오는 거짓 신인 바벨론의 왕과 52~53장에 나오는 시온 왕을 연속적인 21개의 대립 구절로 대비한다. 여기서는 바벨론 왕이 어떻게 자신을 하늘 높이 올리는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철저히 굴욕을 당하는지 보여 준다. 반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왕으로 들어 올려지기 전에 철저한 굴욕을 겪으신다.

나는 굴욕과 승영이 이사야서의 핵심 개념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사야는 한 구조 내에 그 중심 주제들에 맞춰 바벨론 왕과 시온의 왕이라는 원형을 만들어 냈다. 이사야는 또 다른 구조, 즉 모든 것보다 가장 복잡한 구조 내에 그 원형들에 맞춰 책의 전체 내용을 구성했다. 굴욕 및 승영이 인류의 두 상반되는 마지막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언이자 신학

나는 이사야 구조의 이러한 주제들에 관해서 다른 것들을 인지했다. 그러한 주제들은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선택한 두 가지 행동 방식을 시사하는 듯했다. 굴욕은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구를 이루는, 결부된 징벌과 고난을 함께 수반한다. 더 나아가 파멸과 폐적을 추가로 포함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두 가지 부정적인 행동 방식인 패역과 불충의 결과였다.

이들 주제의 상대 주제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승영은 또한 구출과 구원을 포함했다. 이들 주제들은 더 나아가 재탄생 및 상속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두 가지 긍정적인 태도인 준수 및 충성의 결과였다. 요약하자면, 이사야서의 7부 구조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신학에 가깝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는지 보여 준다.

그러나 이 주제 구성에는 단지 관념 대조 또는 대구법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나는 이사야가 구조의 개별 단위 내에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자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신학 개념을 확립함을 알게 되었다. 이 방식으로 전개되고 나면 이들 개념은 구조의 한 단위에서 대구를 이루는 상대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대구 단위 집합에서 전개되고 확장된 개념은 다음 대구 단위 집합에서 확립되고 확장된 새로운 개념의 출발점이 되었다. 개념은 그런 식으로 끝까지 누적되어 나간다.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 내부 작용을 살펴보자.

과멸 및 재탄생(이사야 1~5장, 34~35장)

1부를 구성하는 장들의 대구 집합은 그 주제가 과멸 및 재탄생(이사야 1~5장, 34~35장)으로, 시온과 세계 열방 간의 상황 역전이라는 관념을 확립한다. 종말에는 시온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한편, 열방들은 사악함 때문에 과멸한다. 언약 저주가 시온에게는 축복으로 바뀌고 열방에게는 저주가 된다. 이사야는 1부에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상황 역전이 시온과 열방에 대해 동시에 일어남을 보여 준다.

이사야는 또한 시온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악행을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뤄짐을 보여 준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열방과 함께 과멸한다. 그러나 시온은 또한 장소, 즉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에서 돌아올 장소, 열방이 저주받을 때 대피할 안전한 장소가 된다. 이 상황 역전, 즉 시온의 재탄생과 열방의 과멸의 배경은 세계의 종말 때 있을 “여호와와의 날”이다.

패역 및 준수(이사야 6~8장, 36~40장)

이사야 7부 구조의 2부는 그 주제가 패역 및 준수(이사야 6~8, 36~40)로, 시온과 열방 간의 상황 역전 개념을 유지한다. 또한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시온이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준수한 결과라는 관념을 확립한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에 부치실 때 그들은 시험을 통과한다. 반면에 열방과 이스라엘의 패역한 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과멸의 나라로 떨어뜨린다. 그들은 시온이 통과한 시험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징벌 및 구출(이사야 9~12장, 41~46장)

이사야 구조의 3부는 그 주제가 징벌 및 구출(이사야 9~12, 41~46)로, 이전 개념들을 유지하고 그 개념들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을 벌하고 의로운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개입하시는지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왕을 일으켜 국가들을 징계하고 몰락시킬 것이다. 앗수르의 왕은 거역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가할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종”과 “아들”을 일으켜 모세가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인 시온을 속박과 유배에서 해방하여 구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은 그들이 모든 나라에서 탈출하여 시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길을 준비한다.

굴욕 및 승영(이사야 13~23장, 46~47장)

4부는 그 주제가 굴욕 및 승영(이사야 13-23, 46-47)으로서, 이 굴욕과 승영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새로 일어날 종말 바벨론에 대한 관념을 확립한다. 이사야는 문학적

장치를 써서 이 새로운 바벨론을 세계 열방, 폭군과 압제자, 호전적인 세계 강대국, 적과 적대국, 교만한 혈족, 이스라엘의 반역자들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 실체로 정의한다. 따라서 문학 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사야의 바벨론은 요한의 “큰 성 바벨론”과 유사한, 일종의 더 큰 성 바벨론으로, 시온이 아닌 모든 것으로 구성된 보편적 실체이다. 시온과 마찬가지로 이 더 큰 바벨론은 사람과 장소, 즉 멸망 전날의 세상과 그 악한 거주민을 의미한다.

이사야 구조의 이 부분은 시온과 바벨론을 대비하여 그 둘이 상반됨을 보여 준다. 바벨론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 보좌에 올랐지만,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시온은 바벨론에서 낮아졌으나 언젠가는 무명에서 출발하여 새롭게 명성을 얻을 것이다. 바벨론이 시온과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개입하여 바벨론의 굴욕과 시온의 승영을 가져오신다.

고난 및 구원(이사야 24~27장, 48~54장)

5부는 그 주제가 고난 및 구원(이사야 24~27장; 48-54장)으로, 한편은 구원, 그리고 다른 한편은 고난이란 관점에서 시온과 바벨론 간의 역전을 설명하기 위해 한층 더 나아간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반면, 바벨론에 거하는 적들은 언약의 저주를 남김없이 받게 된다. 시온을 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고, 곤경에서 구출하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심으로 이뤄진다. 시온은 심지어 죽음의 저주를 극복하고 불멸의 상태에 이른다. 시온의 왕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 구원의 영적인 측면을 초래하시는 한편, 하나님의 종은 실체적 또는 현세적인 측면을 불러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왕으로 들리시기 전에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언약의 저주를 조금도 남김없이 겪으신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종은 이스라엘을 언약의 율법으로 가르쳐서, 흩어져 있는 바벨론 또는 세상에서 시온이 대규모로 돌아올 길을 준비한다. 하나님의 종은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하는 데 의의 모범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고통에서 구하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시온이 역경의 시기를 충실하게 견뎌낸다면 시온을 고난에서 구하고 시온에게 힘을 실어 준다.

불충 및 충성(이사야 28~31장, 55~59장)

이사야 구조의 6부는 그 주제가 불충 및 충성(이사야 28~31, 55~59)으로, 의인을 위한 생명의 언약과 악인을 위한 사망의 언약이라는 두 언약의 관념을 확립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조건에서 충실함을 입증하는 사람들과 무조건적인 복천년 언약인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은 종이 불러 모으는 소리에 응하여 열방에서 시온의 장소로 돌아간다.

반면에 하나님께 불충한 것으로 판명이 난 사람들은 스스로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과 언약을 맺는다. 불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인간의 권고나 책략에 의존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궁극적으로 시온에 대적하여 싸운다. 죽음과 계약을 맺은 자로는 살인자, 간통자, 위선자 등을 들 수 있으며, 앗수르의 왕이 그들을 파멸한다.

폐적 및 상속(이사야 32~33장, 60~66장)

7부는 그 주제가 폐적(廢嫡)과 상속(이사야 32~33, 60~66)으로서, “여호와와 의 날”에 이뤄질 의인과 악인 간의 영원한 분리라는 관념을 확립한다. 의인은 영화롭고 영원한

상속을 받지만, 악인은 부끄럽고 영원한 폐적을 당한다. 악인에는 의인을 쫓아내고 박해한 광신자들과 실권자들이 포함된다. 의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움의 표상인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추가된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이 포함된다. 이 종들은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을 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일을 돕는다.

이사야서의 7부 구조는 구원과 승영 또는 영광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개인이 죄 사함을 받고 저주 역전, 즉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지만 승영은 이를 훨씬 초월한다. 승영은 구원을 포함하나, 그저 범법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 승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충성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여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전 언약들의 모든 축복을 통합하는 무조건적인 복천년 언약을 맺으신다.

한편으로는 극악한 사악함,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놀랄 만한 의로움의 본보기가 이 구조에 나오는 개념의 전개를 완결 짓는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의 백성을 더 높은 영적 및 육체적 차원으로 들어 올리는 것임을 입증한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또한 그러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데에서 악인의 반대와 역경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에게 그 위로 올라갈 기회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움이 됨을 보여 준다. 이사야서의 7부 구조는 의인과 악인의 두 상반된 운명에 관한 설명으로 끝을 맺는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두 개의 시간틀을 확립함

이사야서의 7부 구조 및 기타 전체론적 구조는 이사야의 예언을 해석하는 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더해 준다. 선형 및 공존 구조는 한때 과거에만 관련 있다고 생각되던 것들에 대해 두 개의 다른 시간틀을 확립한다. 고국에서의 문제, 해외 유배, 행복한 귀향과 같은 선형 구조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는 반면, 이사야서의 7부 구조와 같은 공존 구조는 세계의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일 시간틀을 다룬다.

그렇더라도 이사야서의 선형 구조와 공존 구조는 서로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 이들 구조는 단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작용할 뿐이며, 둘 다 유효하다. 이사야서의 전체론적 구조는 히브리 예언이 현대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말끔히 풀어낸다. 사실상 이사야 예언의 문학적 차원이 열쇠로 여겨지며 그렇지 않으면 봉인된 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 예언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가 다시 논의해 보자. 기억하겠지만 종말적 예언은 세계의 종말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 모두를 예언한다. 반면에 고전적 예언은 언뜻 보기에 세계의 종말에 대해 그저 긍정적인 것들만 예언하는 듯 보인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선지자의 당대와 관련된 사건들만 다룬다. 하지만 문제는 어떠한 종말 시나리오도 긍정적인 것들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로도 이뤄져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고전적 예언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이사야서의 전체론적 구조에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이사야서의 선형 구조는 그가 한 예언의 부정적인 측면을 당대와 관련 짓고 긍정적인 측면을 세계의 종말과 관련 짓지만, 이사야서의 공존 구조는 “종말”을 책 전체의 배경으로 확립하여 그의 예언 전체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여 세계의 종말과 관련 짓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과거의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 역사적 시나리오로 본다. 둘째, 미래의 사건들을 주로 다루는 종말 시나리오로 본다.

이 점을 거듭 말하지만, 이사야서의 공존 구조를 등식에서 배제한다면 이사야 예언의 부정적인 측면이 전적으로 이사야 시대에만 적용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부정적 측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왕을 일으켜 자신의 백성과 열국을 사악함 때문에 벌하시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사야 시대에 그 역할을 완수한 실제 앗수르 왕이 있었다. 이사야서의 선형 구조는 그 역사 시나리오를 투사한다.

둘째, 이사야서의 공존 구조를 등식에 포함할 때, 우리는 이사야 예언의 부정적 측면이 추가로 종말에 일련의 예표로 작용한다는 결론을 짓는다. 그때 종말 “앗수르의 왕”이 하나님 백성과 열국을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벌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앗수르의 왕이 수행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세계 모든 곳에서 구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시나리오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사야서의 공존 구조에서는 악인들의 징벌과 의인들의 구출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사야 예언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모두 동시에 이뤄진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공존 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사야의 예언은 종말적 예언처럼 전적으로 세계의 종말에 적용된다. 사실상 그런 점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종말적 예언이다. 이사야서의 7부 구조 및 기타 공존 구조로 전체 책에 대한 종말적 환경을 확립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종말적 예언으로 만든다. 역사는 실로 반복될 것이며 많은 고대 사건들이 다시 한번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세계의 종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 규모로, 즉 이번에는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억 명이 관련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은 과거에 영향을 미쳤던 것보다 미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사야의 예언 방법은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세계의 종말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시초부터 종말을 보았으므로 그가 살던 시대나 그때와 가까운 시대에 일어났던 종말의 사건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건들을 골라낸다. 이사야는 이러한 사건들을 역사적 시나리오와 종말 시나리오를 동시에 예언하는 데 필요한 기반으로 사용한다. 그 예언 방법은 종말적 선지자가 예언하는 방법을 훨씬 넘어선다. 종말적 선지자는 종말 때 세계 강대국을 상징하는 자기 시대의 세계 강대국 이름을 낸다.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가 하는 것처럼 그런 강대국이 당대와 종말 때 모두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이사야는 두 종류의 전체론적 구조로 이 이중적 예언 방법을 달성한다. 이런 요소가 바로 그의 특유한 예언 방식을 가능하게 해 준다. 한편 선형 구조는 연대순으로 말하자면 이사야 시대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끝난다. 반면에 연대순이 아닌 공존 구조는 모두 종말에 시작되고 종말에 끝난다. 이사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환경을 확립하는 데에 두 종류의 전체론적 구조를 사용하여 두 개의 전혀 다른 시대, 즉 당대와 종말의 미래를 동시에 예언한다.

시온과 바벨론—상반되는 원형

그러나 이사야서의 7부 구조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다. 세계의 종말 때 모든 사람은 두 부류, 즉 시온에 속한 사람과 시온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이 구조에서 시온은, 총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인된다. 이들은 더 낮은 영적 및 육체적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국가로 태어났듯이 그들은 열방에 흩어졌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흩어졌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새로운 이름, 즉 시온으로 불린다.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는 시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새로운 이름, 즉 바벨론으로 일컫는다. 이 종말 바벨론은 거역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곳의 모든 사람으로 이뤄진다. 그들은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서, 더 낮은 영적 및 육체적 차원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시온에 대적해 싸운다. 놀랄 것도 없이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 나오는 이 더 큰 성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 시온 및 바벨론은 제각기 시온의 왕 및 바벨론의 왕과 연합한 선과 악의 원형이 되며, 각 부류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 준다. 종말 예언에서도 역시 그렇게 한다. 종말적 예언은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길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시온으로,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식별한다. 그러나 종말적 예언은 시현의 넓이와 깊이에서 이사야만큼 멀리 도달하지 못한다. 이사야의 시온과 바벨론은 두 상반되는 이념 및 그 이면에 있는 신학이 갖는 모든 고전적 예언 및 종말적 예언의 정의를 뛰어넘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7부 구조 전반에 걸쳐 두 개의 대비되는 세계관을 마주하게 된다. 이 구조는 개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하면서 두 가지 방식의 교리를 자세히 설명한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언약의 조건을 준수하면 재탄생, 구출, 구원, 승영 및 상속으로 인도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패역하고 성약에 불충하면 파멸, 징벌, 고난, 굴욕 및 폐적을 불러올 것이다. 모든 인류는 궁극적으로 반대되는 두 이념인 시온 이념과 바벨론 이념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사람들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따르는 상반되는 두 운명 중 하나를 경험할 것이다.

바벨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스스로 높임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평화의 통치를 하시기 전에 잠깐 시온을 연단하는 불로 작용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압제하는 바벨론을 통해 그분의 백성이 언약에 충실한지 시험하신다. 시온은 바벨론의 모진 학대를 똑같이 갚아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시온은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릴 것인가? 시온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시온을 되찾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자 하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보내 언약의 율법으로 시온을 가르치고 역경 속에서 의의 모범으로 봉사하게 하신다.

반면에 바벨론과 바벨론에 속한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확정 짓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바벨론은 사악함과 우상 숭배로 눈이 멀어서, 불치의 병을 키운다. 바벨론의 거주민들은 이스라엘이 탈출하기 전의 애굽 사람들 같다. 이 때문에 세계의 종말 때 바벨론은 악행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호소에도 더는 응할 수 없는 지경까지 퇴행하게 된다. 바벨론은 시온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저주를 자초했다. 하사 언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충실한 제후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스스로 재앙이나 불행을 불러들인다.

시온이 바벨론에서 억압을 충실하게 견뎌 내었기 때문에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시온은 산고를 겪으며 종말 때 하나님의 종인 구원자 “아들”을 낳는다. 시온이 걸보기에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대신해 개입하기로 선택하신다. 이 “여호와와 날”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했던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시온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로서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시길 것이다.

그러므로 시온의 제왕은 제후를 멸망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적을 전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맺으셨던 것처럼 시온과 새로운 무조건적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바벨론이 보좌에서 내려와 먼지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에 시온은 먼지에서 올라와 정당한 왕좌를 차지한다. 시온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땅을 다스리러 오실 것이고 복천년의 평화가 시작될 것이다.

6

폭군과 종

세계의 종말 때 세계 무대를 좌우하는 두 명의 최대 경쟁 상대를 논함. 한 명은 혼돈의 힘이고 다른 한 명은 창조의 힘이며, 한 명은 지구와 거의 대부분의 거주민을 멸망시키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백성을 구출할 것임. 폭군은 고대의 포악한 지배자와 신화에 나오는 악한 신들의 패턴을 따르는 반면,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영웅들의 패턴을 따르고 현세적 메시야에 대한 유대인의 기대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 줌.

이사야서의 7부 구조는 이스라엘의 종말이라는 연속극에서 두 사람의 주연 배우를 그려 내는데, 한 명은 하나님의 종 또는 제후, 다른 한 명은 바벨론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앗수르 왕이다. (고대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앗수르 정복자들은 자신을 “바벨론의 왕”이라 칭했다.) 한 사람은 시온을 세워 그들의 하나님이자 왕이 오심을 맞기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킨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표본이 되는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이사야서의 구조에서는 이들 두 인간 배우를 각각 창조와 혼돈의 힘으로 그린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선을 위한 힘으로 활약하고 다른 사람은 악을 위한 힘으로 활약한다. 그들은 애굽 신화에 나오는 호루스와 셋 또는 종말의 다윗과 골리앗처럼 서로 겨뤘던 두 명의 최대 경쟁 상대들을 닮았다.

이사야서의 구조에서는 앗수르/바벨론의 왕을 과거부터 있어 온 수많은 폭군의 예표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적 인물로 묘사한다. 비록 그는 한 사람이지만, 이사야는 그에게 앞서 존재한 수많은 사악한 통치자 또는 악당들의 역할 및 성격에 드러나는 특성을 부여한다. 앗수르의 제왕들은 고대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국주의적 세계 정복자들의 전례를 남겼는데, 그는 바로 그 역할을 맡는다. 또한, “바벨론의 왕”이란 칭호는 자칭 반신반인인 이 폭군-왕의 우상 숭배의 측면을 입증한다. 고대 바벨론은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전례를 남겼다. 그 사회 경제 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즉 거짓 신들의 제조에 기반을 두었다.

바벨론의 유물론 및 우상 숭배 경제와는 달리 시온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은 전원과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체제는 특히 공격을 받을 때 사회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바벨론에서는 “많은” 우상 제조자들이 “적은” 농민에 의존한다. 그 체제는 바벨론 사회를 취약하게 만든다. 따라서 바벨론은 시온과는 정반대이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는 피라미드와 같다. 시온에 비교해 볼 때, 바벨론은 거꾸로 된 피라미드여서 그 기초가 불안정하다. 바벨론의 구조는 폭군-왕이 정권을 장악하여 피라미드를 완성하자마자 붕괴될 준비가 되어 있다.

폭군이 세계를 정복함

바벨론의 포악한 지배자가 보이는 우상 숭배 본성은 바벨론 그 자체의 우상 숭배 본성과 일치한다. 그는 바벨론의 왕으로서 자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이라며 자신을 신(거짓 신)으로 격상한다. 그는 세계를 정복한 지배자로서 온 인류에게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사야는 조롱하듯이 그를 고대 근동 신화의 인물들에 비유한다. 그는 구름 위에 있는 그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지구를 다스린다. 이런 방식으로 이사야는 사상 최고의 전형적인 폭군 또는 대폭군인 바벨론의 우상 왕을 그려 낸다.

따라서 이사야는 앗수르와 바벨론의 고대 왕들이 지녔던 성격상 특성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악한 신들이 가진 속성들까지도 이 사람에게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오늘날에 살았다라면 아돌프 히틀러, 조셉 스탈린, 다스 베이더 등의 악한 특성들을 결합했을 수도 있다. 미래의 세계 독재자는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수많은 독재자 유형의 부정적인 특성들을 전형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그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자신의 거짓 이념을 잔혹하게 시행하고, 어쩌면 우주 정거장이나 “우주 도시”에서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한 신화론적 암시에도 불구하고, 이 대폭군은 세상 종말에 존재하며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것을 수행할 실제 사람이다.

이사야는 바벨론의 왕이 신성의 위조자임을 폭로한다.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의 위조물이다. 이사야서의 구조에서 이 폭군-왕은 창조가 아닌 혼돈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는 지구 전체에 파괴적인 행위를 가한다. 생명을 주거나 구하는 신이 되는 대신,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목숨은 물론 그들 삶의 터전을 파괴한다. 그는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 그들에게 폭정을 펼친다. 그는 지구를 태초처럼 혼돈의 상태로 바꾸어 버린다. 그가 저지르는 파괴의 일이 끝나면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을 시작해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증은 창조의 힘으로 작용하며 대폭군의 상대로 활약한다. 그는 세계에서 모든 선의 기초가 되는 공의와 의를 확립하고자 일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새롭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는 멸망에서 구한다. 그는 “여호와와 의 날”에 그들을 속박과 폭정에서 구해 내어 안전으로 인도한다. 지구가 황폐해진 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 폐허를 재건한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문명이 도래함을 알린다.

이사야 구조의 혼돈과 창조 패턴에 따르면, 지구에서 혼돈이 잠시 활개를 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의 결과로 혼돈이 세상을 압도할 것이다. 앗수르/바벨론 왕은 도시들을 불태우고 악인들의 국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의 재물을 몰수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악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활약한다. 그의 목적은 오직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신다. 이 폭군 중의 폭군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후 그와 그가 벌인 혼돈의 일들이 끝을 맞이할 것이다.

모든 히브리 예언에서 사악함에 이어 오는 과멸은 원인과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를 정복하고자 것처럼 대대적인 파괴를 일삼는 사람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겉보기에 무적인 그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그러한 악의 원인이 되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실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가 아무리 기개가 높거나 잘 조직되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고안된 어떠한 무기도, 그것이 아무리 치명적일지라도 그들을 해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보다도 더 강하시다. 대폭군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비록 그가 높은 곳에서 다스리며 자신을 모든 사람 위로 높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가장 낮은 구덩이인 지옥으로 던져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고대로부터 악인의 멸망을 처음부터 계획하셨다.

이제 “여호와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바벨론 왕을 임명하시고 그에게 파괴의 일을 하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대폭군의 혼돈으로부터 새롭고 더 높은 창조를 이루어 내기로 미리 정하셨다. 지구 자체와 모든 인류는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위를 향하는 진보의 길에 있다. 복천년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악함과 폭정이 지면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은유적 의인화

세계의 종말은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난 때와 비슷할 것이다. 세계의 종말과 노아 시대의 홍수가 일어난 때는 만연한 사악함의 종류와 그에 뒤따른 광범위한 생명의 파멸이란 측면에서 비교될 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왕을 바다와 강이라는 이름으로 칭한다. 이사야는 그를 세상을 휩쓸 새로운 홍수로 비유한다. 이 대폭군은 파괴적이어서, 솟아오르는 파도로 경계를 넘는 바다처럼, 강둑을 넘어 흐르는 강처럼 그 앞에 놓인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대폭군의 군대는 악인들을 쓸어버리며 그들의 땅에 물밀듯이 밀려와, 재앙과 황폐만 남기고 떠날 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왕의 성격상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명이나 별칭을 사용하여 그를 묘사한다. 이러한 이름은 은유적 의인화의 형태를 취하는데, 대폭군은 특정한 악한 속성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앗수르 왕의 가명인 바다와 강은 원래 거짓 신인 혼돈의 신화적인 힘을 나타내는 이름이었다. 가나안 신화에서, 혼돈의 힘은 죽음과 함께 악의 세력을 대표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의 손으로 홍수가 난 요단 강을 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종의 손으로 세계의 종말 때 바다와 강을 잠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모든 조건에서 그분께 충실함을 입증할 때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하실 것이다. 그분의 종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적들에게서 건져 낸 것처럼, 죽음의 집행자인 앗수르의 왕에게서 그들을 건져 낼 것이다.

이사야는 이러한 가명 사용에 더하여, 대폭군이 종말에 하는 활동이 부지불식간에 더 상세하게 드러나도록, 전체 은유를 골라 배열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왕을 막대기와 몽둥이로 선택하시어, 세상의 악인들을 징벌하신다. 대폭군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인들을 찌어 낼 하나님의 도끼와 톱이다. 이사야는 세계의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높이 솟은 삼나무와 백양목에 비유한다. 대폭군은 이들을 베어 땅에 떨어뜨린다. 도시는 뻣뻣한 숲과 닮았으며, 교만한 국가는 높은 산맥을 닮았다. 대폭군은 이것들을 무너뜨려 땅에 곤두박질치게 할 것이다.

대폭군은 “여호와와의 날”에 악인들을 향해 불붙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화신이다. 대폭군은 하나님의 복수와 격분으로, 격노와 분개로 악인들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쳐 그들을 죽인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패역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을 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팔이다. 그는 악으로 무르익어 가는 세계를 정복하고자 동맹국들을 결집하는 악한 것발이다.

이 악한 왕은 악인의 목소리이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뼈뺌하게 말하는 혀이다. 그는 끝없이 입을 열어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그의 입술은 분노의 연설을 쏟아낸다. 그는 악인을 매질하는 채찍이요, 그들 목에 채운 멍에요, 파멸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불과 같다. 그는 어둠 그 자체다. 그는 어둠의 힘으로서 침울함과 불행을 초래하고 온 세상을 어둠으로 뒤덮는다.

이사야의 잠재 메시지

대폭군을 묘사하는 은유는 사악한 왕의 성격상의 특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의 본질도 나타낸다. 이사야가 대폭군을 하나님의 진노, 분노, 격분, 분개 등의 화신으로 삼은 것은 악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치고 벌하기를 원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친절하고, 다정하며, 온화하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에 따라 공정한 결과가 찾아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인 앗수르의 왕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세상의 악인들을 멸하신다. 공의는 그런 식으로 실행된다.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악을 자신에게 가져온다.

이사야는 책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은유를 가명으로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가명이 대폭군인 것을 직접 밝히나 또 다른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동의적 대구법을 사용하여 그렇게 밝힌 이름에 연결한다. 전형적으로 이사야가 책의 한 부분에서 하나의 관념을 확립하면, 그 관념은 책 전반에 걸쳐 관련된다. 이사야는 그러한 가명을 써서 그의 책에 세계 종말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상세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찾아내어 두 번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불붙는 듯하며, 그분의 손이 높이 들리고, 그분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쏟아졌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빛 대신에 어둠을 선택한다.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한다. 그들은 불로 태워질 것이다. 그들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분노, 손, 진노, 어둠, 혀, 불, 검 등의 용어는 대폭군을 혼란의 힘으로 묘사한다. 그는 이러한 특성의 화신이며, 이사야는 그 대폭군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창조의 힘이기도 한 하나님의 종말시대 종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사야는 또한 그러한 가명을 써서 대폭군과 그의 성격을 밝힌다. 일부 가명은 대폭군을 묘사하는 것과 같은 반면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가명이 같은 것은 폭군과 종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있음을 시사한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생명과 영혼을 두고 서로 경쟁한다. 반면에 다른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이사야는 종을 창조적인 힘과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구별한다. 이사야는 이러한 용어를 써서 하나님의 종과 대폭군 간에 일어날 삶과 죽음의 투쟁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 또한 손으로 나타난다. 그 종은 하나님의 오른손 역할을 맡아,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사로잡힌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풀어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열방에 기치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 그 종은 언약의 백성에게 의인의 목소리,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한다. 그 종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앗수르의 왕을 누를 힘을 휘두를 것이다. 그 종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검이며, 폭군들을 태워 버리는 불이다.

다른 은유들은 종만을 묘사한다. 예를 들어, 그 종은 “여호와와 의 날”이 도래함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여호와께서 지상을 다스리러 오심을 알린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여러 국가에 빛으로 임명하고 세계의 종말 때 그들의 어둠을 밝히신다. 그 종은 악한 시대에 의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충실함을 모범으로 보일 것이다. 그 종은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춰진 선택된 화살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의로운 가지이다. 그 종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팔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언약의 백성을 구출하려고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종은 많은 예표를 가짐

이사야는 앗수르의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도 복합적 인물로 묘사한다. 이사야는 그 종에게 이스라엘의 여러 영웅이 수행했던 역할과 그들의 성격적 특성을 결합한다. 비록 그 종은 한 사람이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했던 일들을

세계의 종말 때 이를 것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말 시나리오가 이스라엘의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주요 사건을 반복하여 실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우두머리를 동시에 여러 명 선택하여 각 사람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일제히 수행하도록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의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시어, 과거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그에게 그 일을 할 능력을 주신다.

그 종은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 또는 북동쪽에서 온다. 그 종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며,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권고를 지켰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수행했듯이, 그 종도 그렇게 한다.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동료들을 적들에게서 구출했듯이, 그 종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에서 롯의 목숨을 살려 주셨듯이, 그분의 종 때문에 그분 백성의 목숨을 살려 주신다.

하나님의 종은 모세처럼 백성의 목자로 불리며, 그들 가운데 있는 범법자를 위해 탄원한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 종도 그분의 백성을 속박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탈출하도록 이끄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었듯이, 그 종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본향으로 돌아간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중재하고 백성의 입법자로 봉사했듯이, 그 종도 그렇게 한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듯이, 그 종도 하나님의 종말시대 종들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다. 모세의 힘이 약해지지 않았듯이, 그 종의 힘도 약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종은 또한 여호수아를 닮는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적들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종은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속의 땅을 지정해 준다. 그 종은 더 나아가 기드온과 닮는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강력한 군대를 무너뜨렸듯이, 그 종도 앗수르 군대를 무너뜨린다. 그 종은 백성의 목에 매인 멍에를 부수고 억압적인 막대기와 몽둥이를 꺾을 것이다.

다윗 왕의 의로운 상속자

어쩌면 다윗 왕은 고대 이스라엘의 어떠한 다른 영웅보다도 하나님의 종을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 그 종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적법한 상속자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맺으셨던 것처럼 그 종과 함께 무조건적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듯이, 그를 선택하여 “종”과 “아들”로 부르신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 종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이다. 다윗이 승리했듯이, 그 종도 하나님 백성의 적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나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며 열두 지파를 다시 단합시켰듯이, 그 종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하셨듯이, 그분의 종을 이스라엘과 열국의 빛으로 임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하셨듯이, 그 종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군주와 입법자로 세우신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 종도 국가들 사이에 공의와 의를 확립한다. 다윗과 솔로몬 왕이 했던 것처럼, 그 종도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토를 넓힌다.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그 종도 지혜와 이해력으로 갈수록 유명해진다.

이사야의 시대에 살았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종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예표를 제공한다. 히스기야의 목숨을 둘러싼 사건들은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 종말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들은 히스기야의 역할을 수행할 하나님의 종에게도 역시 반복될 것이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협을 받았듯이, 그 종도 그렇게 한다. 히스기야가 고난 중에 죽음에 이를 정도로 영혼을 쏟아 내었듯이, 그 종도 그렇게 한다. 히스기야가 백성의 현세적 구원을 위해 대가를 치렀듯이, 그 종도 그렇게

한다.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 따르면, 앗수르가 시온 또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일이 세계의 종말 때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탄원했듯이, 그 종도 그렇게 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의 보호를 얻었듯이, 그 종도 그렇게 한다.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게 될 때까지 임시로 그 종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죽을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고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종을 고치신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역할 및 성격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 자신도 포함된다. 그 종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그 종은 이사야처럼,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부여하셨듯이 그 종에게도 부여하신다.

사울이 다윗을 추방했듯이, 그 종도 범법자로 여겨진다. 그 종은 쾌락을 사랑한 자녀들을 둔 욱처럼,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참아 낸다. 하나님께서는 욱이 무고에 대해 정당하다고 하셨듯이, 모든 사람 눈앞에서 그 종이 정당함을 밝히실 것이다.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두 사람 중 하나인 갈렙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위대한 자들 가운데 상속자로 지정하신다.

다윗이 용사들과 전리품을 나누었듯이, 그 종도 원수들에게서 전리품을 빼앗는다. 웃시야 왕이 나병으로 상했듯이, 그 종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시기 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한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여러 나라와 통치자들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셨듯이, 그 종을 임명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영감을 주셨듯이, 그 종에게 영감을 주신다.

유대인이 메시아에 거는 기대

따라서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 따르면,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은 이스라엘 고대 영웅들의 모든 긍정적인 특징을 갖춘다. 당연히 그 종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킨다. 물론 이러한 기대는 기독교인이 갖는 기대와는 같지 않다. 메시아에 대한 기독교인의 생각은 영적 구원에 중점을 두는 반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희망은 실체적 구출에 중점을 둔다. 그럼에도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은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 유효한 근거를 가지며, 똑같이 현세적 메시아를 예언한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의 글에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아에 대해 오직 하나의 관념만이 타당한가, 아니면 둘 다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사야의 예언은 영적 메시아와 현세적 메시아라는 두 관념을 모두 뒷받침한다.

7

하늘로 오르는 이사야의 사다리

이사야의 예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기반한 영적 위계인 인류의 오르는 순서를 제시함. 위 수준의 사람들이 아래 수준의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지만, 그들 자신은 더 위 수준의 사람들에게서 성역 베풀음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는 일곱 영적 수준을 밝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에 앞서 어떻게 일시적인 내려감 또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시험이 있을지를 보여 줌.

이사야서의 7부 구조는 예언의 본질에 대해 완전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을 히브리 예언에 더한다.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미래에 관해 현명하게 추측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학자들은 잘못된 입장을 출판한 후에도 쉽게 철회하지 않는다. 일례로 이사야서는 여러 “이사야”가 수 세기에 걸쳐 기록한 산물일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함께 묶는 다중 문학적 구조는 여러 다른 지성과 관점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복잡하게 엮어 만든 예술 작품이 분명하다. 그것은 최고의 문학적 기법이 필요한,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걸작이다.

이사야—선지자이자 신학자

책의 7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사야가 자신의 글에 대해 말해야 했던 바를 인정해야 한다. 첫째, 이사야는 자신이 시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적었다고 주장한다. 이사야는 요한처럼 미래 “여호와와의 날”에 일어날 실제 장면들을 목격했다 둘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쓰라고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고 주장한다. 셋째, 이사야는 그가 말한 것이 시초부터 종말을 다룬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야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놀랍도록 상세한 종말 시나리오를 투사한다. 이사야가 실제로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권세로 미래를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는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는가?

그러나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 우리는 예언 이상의 많은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또한 포괄적인 신학을 발견한다. 이사야는 그 신학을 자신의 예언에서 그런 것처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이사야의 시온 이념에서 우리는 이미 그 일부를 본 적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 따른다.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한다면 더 큰 축복과 특권이 따른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순서

모든 사람이 같은 영적 수준에 있지는 않으므로, 이사야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따라 인류를 올라가는 부류와 내려가는 부류로 나누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류들을 궁극적으로 하늘에 닿는 영적 사다리에 비유할 수 있다. 사다리의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이든 올라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순간 곧바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영적 수준에서 다음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 및 개인들과 맺는 언약의 조건을 규정하셨다.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대폭군의 예에서 보듯이, 지름길을 택해 하늘로 가려고 하면 재앙으로 끝날 수 있다.

사다리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는 절대적 사악함이자, 순수 악인 대폭군의 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사야 이외의 다른 출처에서, 이들 악의 하수인들은 멸망 또는 “멸망의 자식들”과 동일시된다. 그다음으로 가장 낮은 부류는 세상의 우상 숭배적인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의 패역자들로, 이들은 바벨론과 동일시된다. 그들 위에 아직은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다. 그들은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 위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나 아직은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낮은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시는 내용에 국한된다.

이러한 낮은 부류에서 예외적인 사람들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특히 다윗과 히스기야 같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있었다. 이사야는 그러한 사람을 들어 종말 때 두드러져 보일 더 높은 영적 부류의 모범으로 내세운다. 이런 부류에는 하나님의 “종”과 “아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백성의 구원자 역할을 하고,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특사인 스랍이 있다.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은 그가 수행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영적 올라감의 정도에서도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영웅적 인물들과 닮아 있다.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은 인류의 구주이시자 모든 선의 모범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사야의 영적 사다리에서 위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귀감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 히스기야 왕은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하여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의의 귀감이 되었는지 보여 준다. 왕과 백성은 하나님께 공동되게 충성심을 보여 영적 사다리를 올라간다. 이러한 일들은 세계의 종말 때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반대 또한 일어난다. 같은 구조 안에서 아하스 왕은 시험에 붙여지자 불충함을 보여 패역의 본이 된다. 아하스와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 공동되게 패역함을 보여 영적인 사다리를 내려간다. 따라서 이사야는 모든 수준에서 백성의 행동을 의로운 지도력 또는 악한 지도력과 연결 짓는다. 백성은 선하든 악하든 자신과 같은 사고의 틀을 가진 지도자를 따른다.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세계의 종말 때 고대처럼 그들 생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

히스기야 시대에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은 왕과 백성에게 큰 시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조율하여 그분의 백성이 충실한지 시험하셨다.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들에게는 항복하여 앗수르 제국 내 또 다른 지역으로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과는 달리, 도시를 포위한 185,000명의 앗수르인들은 잘 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윗 언약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얻기 위한 모든 요건이 갖춰져 있었다. 왕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동안 백성은 지도력을 고대하며 왕을 바라봤다. 왕과 백성이 모두 앗수르의 위협을 무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그들은 그렇게 하여 시험을 통과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앗수르 군대를 죽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앗수르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원치 않는 구혼자인 앗수르의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시온 여인에 비유한다. 시온은 남편인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알기에 앗수르 왕을 경멸하며 웃는다. 이사야는 또한 백성이 위기에 처한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구했는지 설명한다. 백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히스기야에게 앗수르의 포위는 엄청난 괴로움의 원인이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처지를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음에 비유한다.

한편 히스기야 자신은 죽을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된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인이 백성의 목숨을 위협할 때 백성들이 전체로 겪는 것을 몸소 경험한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 내자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신다. 이사야가 왕을 치유하여 계속 살게 한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백성을 앗수르인에게서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왕의 고뇌하는 시련과 연결한다. 하나님께서 왕을 죽음에서 건지셨듯이, 다윗 언약의 조건하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실 것이다. 사실상 히스기야는 고난을 겪음으로써 백성을 구출하는 값을 치렀다.

이렇게 하여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보다 왕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백성들은 앗수르의 위협에 몹시 근심하며 고통스러워 한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 어린 자녀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한 엄청난 역경에서 구출될 길이 있을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과 왕을 우위에 두고 앗수르인들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한다. 게다가 왕은 그 위협과 더불어 심지어 죽음 직전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여 목숨을 내어드리려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조건에서 충실함을 입증한다.

이런 식으로 이사야는 구원자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보여 준다. 모세와 다윗 같은 사람들이 통과했던 시험과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받은 시험도 혹독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히스기야 개인에게 맞춰 조율하셨지만, 그 시험의 혹독함 정도는 다른 구원자들이 통과한 시험과 비슷하다. 히스기야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험을 주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시험을 통과하여 구출된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또한 백성의 구원자, 즉 이사야의 영적 사다리에서 아들/중 수준의 구원자가 된다.

더욱이, 그의 백성은 존망의 위협에도 왕에게 계속 충성하여 시험을 통과하여 그들도 구출된다. 다윗 언약의 조건에 따라, 백성들은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왕에게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함을 입증한다. 시험을 통과하면 그들은 시온/예루살렘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그 시점에서 그들을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닌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일컫는다. 왕과 백성 모두가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거듭났다. 왕에게 다윗 언약은 시온/예루살렘 단계에서 아들/중 단계로 올라가는 방편으로 작용했다. 백성에게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이 앞서 상실한 언약, 즉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런 후에 이사야는 같은 7부 구조 내에서, 올라간 사람이 아직 올라가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성역을 베푸는지 보여 준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성역을 베풀었고 히스기야가 시온/예루살렘에 성역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시온/예루살렘도 야곱/이스라엘에 성역을 베풀다. 더 낮은 부류는 아직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로 이뤄진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한 시온/예루살렘에게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도록 위임하신다. 그들이 그렇게 하여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할 때, 그들은 히스기야 왕과 같이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종말 시나리오에서, 하나님의 어떤 “종들”과 “아들들”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도록 도움으로써 시온/예루살렘 부류에서 올라간다. 이사야의 성역 방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유효하다.

세 아들의 상징적인 이름

이사야는 당대의 실제 사람들과 사건들을 써서 이 영적 상승 신학을 전개하여 영적 계층의 귀감 역할을 제공한다. 이사야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여 세계의 종말을 예언했듯이, 같은 방법으로 중요한 신학 개념을 전개하고 역사에 등장한 실제 인물을 들어 이러한 개념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살아 있는 사람은 여러 다른 영적 수준을 실증하고, 여러 다른 영적 차원은 이사야의 상승 신학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애석한 일이나 놀랄 일은 아니다. 그들은 또한 이사야의 신학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겉면에 불과한 사람과 사건 그 자체이다. 그들은 이를 근거로 이사야의 글을 해석하려고 시도했고 사람들과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의 본질을 놓쳤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의 7부 구조는 세 유형의 아들에 대한 문학적 전통에 의거하여 하나님 백성의 세 부류를 설명한다. (1)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 불충하거나 거역한 것으로 판명이 난 사람들, (2)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나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아직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 (3)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한 사람들. 개별 가족 내에서도 세 부류의 아들들을 모두 찾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도 그들을 찾을 수 있다.

이사야의 영적 부류와 비교할 만한 것으로, 바울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천체의 밝기에 비유하여 유사한 영적 부류를 말한다. 각각의 밝기는 서로 다른 영적 수준을 나타낸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고린도전서 15:41) 이러한 부류는 고대뿐만 아니라 세계의 종말에도 존재한다. 각 부류에게 “여호와와 날”은 시험이 되며 각 부류가 그 시험을 다르게 경험한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세 가지 상징적인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 백성의 세 부류를 나타낸다. 첫 번째 이름은 마헬살랄하스바스로 “서둘러 약탈하라, 서둘러 전리품을 챙겨라”를 의미한다. 이사야는 자기 아들 중 한 명에게 그 이름을 주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을 앗수르가 멸망시키고 약탈할 것을 예언한다. 그 이름이 상징하는 부류에는 시험에 붙여지자 하나님께 패역한 아하스의 본을 따른 야곱/이스라엘 사람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영적으로 이사야의 바벨론 수준으로 내려가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고대와 마찬가지로 종말 때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잃게 된다.

야곱/이스라엘 수준에서 바벨론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야곱/이스라엘 수준이 영적 사다리의 중추 지점임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거기서 시온/예루살렘 수준으로 올라간다. 다른 사람들은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처럼 유사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벨론 수준으로 내려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올라가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지만, 일부 사람에게서는 그런 기회 자체가 또한 내려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악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한 사람들은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받은 상징적인 이름인 스알야습은 “잔류민이 회개하리라” 또는 “잔류민이 돌아오리라”를 의미한다. (히브리어에서 동사 회개하다는 또한 “돌아오다”를 의미한다.) 이 이름은 악행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는 야곱/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충성 시험을 통과하면 그들은 시온/예루살렘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다음 가장 낮은 부류인 야곱/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성역을 베풀어 그들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임명된다. 세계의 종말 때 회개하고, 자신이 열국에 흩어져 있음을 알게 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보호해 주실 곳인 시온으로 돌아간다.

임마누엘이라는 세 번째 상징적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이다.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 그 이름은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한 시온/예루살렘 사람들을 나타낸다. 이들은 하나님의 충성 시험을 통과하고 아들/종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 부류에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들”과 “아들들”이 있다. 이들은 각각 구원자이다. 그들은 히스기야처럼 영적 사다리에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고 성역을 베풀다. “여호와의 날”에, 그들 덕분에 시온/예루살렘 수준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하셨듯이, 그분의 종들과 아들들과 함께하셔서 그들과 그들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의 구원하는 역할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들과 아들들이 어떻게 반대에 부딪히고,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과 열국의 사람들, 즉 바벨론을 이룬 사람들에게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 설명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밤낮으로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위해 우상 숭배자, 거짓 선지자, 악의 권위자, 사교도들과 겨룬다. 그들은 세계의 종말 때 하나님 백성의 사악함에 애도한다. 그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분께 받아들여질 만한 희생을 바친다.

하나님께서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날”에 그분의 종들 때문에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분 백성의 지파들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 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다. 동시에,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과 싸웠던 적들은 언약의 저주를 남김없이 다 받으며 바벨론에서 멸망한다.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은 또한 금속과 돌의 이미지로, 우리가 확인한 여러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한다. 귀금속 및 보석은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의 수준을 상징한다. 준보석은 시온/예루살렘을 상징한다. 평범한 종류의 보석은 야곱/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사야는 이들 아래의 수준을 “혼잡물”과 “찌꺼기”에 비유하는데, 이는 각각 바벨론과 멸망(Perdition), 앗수르 왕의 수준에 해당한다. 다른 은유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용어는 하나 이상의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종들과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존망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의 조건에서 그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행하는 그분의 종들 때문에 그 종들이 성역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반면에 시온/예루살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그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은 시내 언약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간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자신을 적들로부터 방어하는 의무를 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할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보다 낮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세계 종말 때에 구리는 금으로 교체되고, 철은 은으로 교체되고, 목재는 구리로 교체되고, 돌은 철로 교체된다. 그때가 이르면 모든 사회는 올라가거나 내려가야 한다. 올라가기를 거부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사라져 잊힐 것이다. 그런 후 지구 자체가 시온/예루살렘 수준으로 올라가 낙원의 영광을 취한다.

위를 향한 막힘 없는 진보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 영적 진보는 하나님의 종과 아들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언약 관계가 모든 수준의 인간 존재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좌우하는 것처럼, 탄생과 재탄생은 모든 수준의 언약 지킴에서 일어난다. 이사야는 거듭난 사람의 영적 올라감이 그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사야의 여러 수준을 올라가는 패턴은 영원한 원리를 반영한다.

이사야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을 이룸에 관하여 세세한 면을 모두 알려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마 그러한 문제 대다수는 신성하며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사야는 모든 수준의 상세 내용 일부를 간결하게 설명한다. 또한, 그는 영적 사다리의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관념을 확립한다. 위 수준의 사람들은 아래 수준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귀감 역할을 하여, 그다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모든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대비는 모든 수준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오로지 사람들이 불충하고 패역할 때만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사야는 사다리에서 아들/종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종 히스기야에게 직접 성역을 베푼다. 그는 죽을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낫게 한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사야 자신도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는 거룩한 천사들인 스랍이 베푸는 성역을 받았다. 스랍이 하나님을 보고 놀라, 말을 하지 못하는 이사야를 고쳐 주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들/종 수준의 선지자로 임명하셨다.

이사야는 7부 구조로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밝힌다.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 면전에 거하는 천사인 스랍의 역할을 하도록 임명하시는지 보여 준다. 40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 봉사한 후에 이사야 역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는 하나님의 천국 평의회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스랍들의 우주적 관점을 경험할 특권을 받았다. 그는 이후로 스랍이 수행하는 가장 높은 영적 수준에서의 성역을 베푸는 역할을 모두 행해야 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과 아들 또한 궁극적으로 스랍의 수준으로 올라가 이사야 또는 스랍이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는 모세처럼 세계의 종말 때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켜 구출한다. 이스라엘 진영에 앞서 나아갔던 하나님 면전의 천사처럼, 그도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그가 세계의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역을 베푸신다.

올라가기 전에 내려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감에 앞서 일시적으로 내려감이 있다. 그 내려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해 조율하시는 충성 시험으로 이뤄진다. 그 내려감에는 신앙에 대한 개인적인 시련으로 고난과 굴욕의 시기를 거쳐야 함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과 승영의 서곡일 뿐이다. 개인은 그런 내려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습득하기를 배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가장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라간 모든 사람들은 이 패턴을 따른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시피,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낮게 내려가거나 신앙의 시련 또한 더욱 극심하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충성을 시험하는 신앙의 시련은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취한다. 첫째, 개인이 자신의 범법에 따른 결과인 언약의 저주를 겪을 수도 있다.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는 그러한 범법을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패역하고 그분께 불충함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구조의 보응 주제 전체 영역인 파멸, 징벌, 굴욕, 고난 및 폐적은 그러한 불충과 패역에서 생겨난 언약 저주의 범주를 반영한다. 하지만 사람이 회개하고 악행을 그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실 것이며, 그런 후에는 그의 죄가 없어진다. 그럼에도 “죄악”이라고도 불리는 범법의 영향은 그 결과를 갖고 저주를 완전히 뒤집는 데 성공할 때까지 그에게 또는 이어지는 세대에 미칠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적이고 문제가 많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 일을 이루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순종으로 저주스러운 환경을 자신과 뒤를 이을 후손들을 위해 바꾸었다.

둘째, 아들/종 이상의 수준인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들에게도, 중재하는 사람들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저주가 생겨날 수도 있다. 그 경우, 올라가기 전에 내려감은 성역을 베풀어 돌보는 사람들을 대신하는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가 된다. 그런데 이제 구원자는 자신이 중재하는 사람들의 패역과 불충에 대해 하나님께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낮게 내려간다. 다시 말해, 그는 더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사람보다 더 극심하게 파멸, 징벌, 굴욕, 고난 및 폐적을 경험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한 대리 구원자가 시험을 통과하고 올라갈 때, 그의 거듭남, 구출, 승영, 구원 및 상속은 또한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이사야 구조의 이러한 유익한 주제는 사람이 높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언약 축복의 범주를 반영한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그 언약 조건 준수를 계속 행한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 펼쳐지고 증대한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충성 시험을 통과하려면 히스기야가 했듯이, 신앙의 시련 중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히스기야가 자기를 버림으로써 새 삶을 얻었듯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다리의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때마다 다시 태어난다. 그 시점에서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을 받는 것이기에, 이기심은 그 사람의 시험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자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의 구원과 승영 즉 마지막 축복의 상태가 더 크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8

구주-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사야가 공존 구조를 어떻게 사용하여 53장의 고난받는 구주가 52장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인지를 밝히고 구원과 승영의 신학을
가르치는지를 보여 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범법을 지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구출하심으로써 어떻게 동물 희생과 고대 근동 제왕-제후 관계의 대리 패턴을 따랐는지 입증하여 보여 줌.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할 수 없음을 보여 줌.

이사야의 영적 사다리에서 일어나는,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는 패턴에 따라, 모든 것 위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신 분이 계시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이시다. 그분의 구원 사명은 뛰어나며, 그분의 고난과 굴욕은 다른 모든 사람이 받은 고난과 굴욕을 능가한다. 학자들은 그분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부르나, 이사야는 결코 그분을 “종”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과 우리가 논한 다른 “종들”과 “아들들”을 지칭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흔히 누가 누구인지에 관해 혼란스러워 한다. 특히 이사야 52장 13절~53장 12절에 나오는 이른바 “네 번째 종의 노래”에 관해 학자들이 추정해 왔던 것과는 다르게,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의 구별 가능한 대상이 있어 더욱 그렇다. 이사야 52장 13~15절, 53장 11~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고, 이사야 53장 1~10절에서는 (아마도 그 종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대변자가 고난받으시는 시온의 왕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편으로 여호와의 종은 상하지만 치유되고 명성을 얻는다. 반면에 시온 왕은 그분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으신다. 이사야의 공존 구조는 이 혼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14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과 52~53장에 나오는 시온 왕을 21개의 연속적인 대립 구절로 대비하는 이사야의 구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를 대상으로 함을 밝힘으로써 이사야 53장 1~10절에 관한 학자들의 고찰을 해결한다. 그분이 죽음으로 내려감은(이사야 53:7~10) 시온의 왕으로 올라감의(이사야 52:7) 전주곡이자 전체 조건이다. 그 내려감과 올라감은 이사야가 중점을 두고 전체 예언을 구성한 굴욕과 승영 패턴의 일부이다. 여호와께서는 몸소 그분의 아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도록 올라가기 전에 내려가는 패턴을 확립하신다.

여러분은 굴욕과 승영이 또한 이사야서 7부 구조의 두 중심 주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할 것이다. 이들 두 공존 구조에서는 승영에 앞서 굴욕을 겪는다. 반면에 자기를 높임은 바벨론 왕의 경우처럼 필연적으로 굴욕이 뒤따른다.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굴욕을 겪으심은 승영을 위한 참된 패턴을 확립하시려는 행위에서 이뤄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약 관계로 매이심

그러나 이 상황 역전의 곤혹스러운 측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모습으로 그러한 고난을 겪으셔야 한다는 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과 굴욕에 내어주시지 않으시고 해야 할 바를 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람처럼 고통을 겪고 죽어야 하는 필멸의 존재이신가? 그렇게 하는 취지는 무엇인가? 해답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및 개인들과 맺은 언약에 일치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라는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

첫째,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의 것이든 사람들과의 것이든,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든 또는 미래에 존재할 것이든, 이사야의 영적 사다리에서 모든 수준에 있는 존재를 다스린다. 게다가 상승 수준이 높을수록 거기서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사람의 구원 사명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상승 수준이 더 높을수록 성역을 베푸는 사람의 일시적인 내려감 또한 더 커진다. 그는 구출하는 값을 내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과 굴욕의 짐을 견딘다.

모든 언약 계약은 시작되는 즉시 그 당사자들이 개인이든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언약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데 언약은 또한 하나님께도 구속력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존망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하기로 언약을 맺으신다면, 백성이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한다. 그러한 예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과 그들 백성이 하나님께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경우를 들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을 구출해 주셨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른 종류의 언약 관계에서도 일어남을 깨달았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국가로서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반면에,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왕에게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중”과 “아들”인 왕의 의로움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탄원하는 그들의 왕 때문에 그들을 구출하신다. 왕은 그의 백성의 대리 구원자로서,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책임지고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충 때문에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킨다.

우리는 다른 종류의 신성한 보호하심을 직간접적으로 더 알고 있다. 어느 한 수준에서는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또 다른 수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백성의 적을 멸망시키신다. 언약을 지키는 수준이 다르기에 이러한 다른 유형의 보호하심이 설명된다.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그분의 백성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나,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 개입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유형의 구출은 현세적인 적에 대한 보호하심과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서나 세계의 종말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조건은 그러한 제한적 보호하심을 훨씬 넘어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궁극적으로 죽음 그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서 구할 수 있으시다. 그런데 그분의 백성이 나이 들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경우, 죽음은 다만 잠시 지연되는 것일 뿐, 그들은 여전히 죽는다.

죽음—공동의 적

그러므로 최대의 광의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어떠한 존망의 위협으로부터도 구출함을 의미한다. 앗수르의 왕은 고대에도 또한 종말 때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위협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위협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다른 원인에 따른 죽음에 취약하지 아니한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그들을 어떠한 존망의 위협으로부터도 구해 주겠다는 규정을 두셨으며, 죽음도 그 안에 포함된다.

이사야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의 종말 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으로부터 구출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 충성을 새롭게 하는 개인으로 이뤄진 하나님 백성의 국가가 범법을 회개하고 유배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국가로서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그들과 무조건적으로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폐지하실 것이다. 그들은 더는 필멸의 존재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평화로운 복천년의 시대는 물론 그 이후까지도 계속 살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고대 근동의 제왕-제후 언약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고대 근동 언약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의 백성과 개인들에게 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언약의 조건에 따라, 제왕은 충성스러운 제후를 도우러 와서 공동의 적을 전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동의 적”이란 제후에게 존망의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제왕은 그 위협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서 공동의 적이 사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죽음을 폐하실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체 어떻게 사망을 멸하실 것인지 우리는 숙고해 보아야 한다. 죽음은 언제나 언약에 따른 저주였다.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어기는 결과로 왔다. 그로 인한 첫 죽음이 에덴동산에서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대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과 가지는 언약 관계를 그들과도 가지셨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동산에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부모와 맺으신 성약 조건이었다.

무조건적 언약의 패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의 땅, 이 경우에는 지구 그 자체를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구 및 그 안에 사는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에덴 동쪽에 동산을 두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지구를 채울 후손이 영속되리라고 약속하셨다. 아담과 이브는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언약의 축복들로 제정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토대가 마련됨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시내 광야에서 맺으신 조건적 언약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언약의 조건을 지킴으로써 죽음의 저주를 뒤집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필멸의 위협인 죽음에 직면한 종을 도우러 오실 근거를 만듦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일에 개입하시고 죽음 자체를 폐지하시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잠재적으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킬 때 그들도 역시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처음 경험했던 불멸의 상태를 취할 수 있다.

그 경우에, 필멸의 존재로서의 경험과 죽음의 저주는 상실이 아니라 이득이 될 것이니, 말하자면 그것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저주인 셈이다.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킨 결과로 사망을 이겨 낸 모든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필멸의 존재로서 겪은 역경의 결과로 영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필멸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충실함을 더 잘 시험하시도록 마련된 증명의 장이 되어 왔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필멸이 가한 고난과 굴욕은 구원과 승영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마침내 사망이 극복되었을 때, 필멸로 내려가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킨 사람들은 그러한 내려감을 경험하지 않고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제왕은 그 적을 정복하지 않고서 어떻게 적을 전멸시킬 수 있을까? 더구나 어느 누가 먼저 죽지 않고 사망을 정복할 수 있을까? 사망이 제후만 위협하고 제왕은 제외한다면, 과연 사망이 “공동의 적”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한편 만물을 지으신 조물주 여호와께서는 죽으시고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속 존재하실 수 있을까?

이사야는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을 52~53장에 나오는 시온 왕과 대비하는 구조로 이들 질문에 답한다. 거기서 그는 부활 관념을 소개한다.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 그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티끌처럼 낮아질 것이며 시온과 시온 왕은 티끌에서 일어나 그들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영은 육체가 있든 없든 계속 살아 있다. 단지 육체만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실제로 죽음을 정복했다고 가정해 보자.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했듯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여전히 죽게 되지 않을까? 죽음이 우리 첫 부모의 범법에 따른 결과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는 누가

되었든 다시금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호와께서 죽음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다는 점에 있다. 그분께서는 또한 백성을 향한 사랑에서 죽음의 원인인 그들의 범법을 스스로 짊어짐으로써 기꺼이 책임지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백성에게 공정하게 지워지는, 언약 조건을 어김에 따른 징벌을 기꺼이 겪고자 하신다. 그러나 백성의 범법이 누적되는 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앞뒤로 늘어나므로, 구원하는 역할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굴욕을 수반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리 구원자가 되심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범법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두 번째 구원자 역할도 맡으신다. 이 역할은 다르지만 제왕의 역할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두 역할은 영적인 사다리에서 가장 높은 성역 기능과 공통점이 있다. 사실상 두 번째 역할은 자기 백성이 제왕에게 저지른 불충에 대해 제왕에게 응해야 하는 제후왕의 역할이다.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역할을 보여 주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대리 구원자의 역할인 “종”과 “아들” 형태의 책임을 짐으로써 그분의 백성을 존망의 위협으로부터, 이 경우에는 죽음 그 자체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할 자격을 갖게 되신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실제로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도 그분에게 제후 지위를 부여한다. 시온의 왕과 바벨론의 왕을 대비하는 구조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거역하는 제후에게 가해진 박해와 징벌을 기꺼이 겪으려 하신다고 묘사한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여러 방법으로 이 제후가 처벌받게 되는 범 죄에 대해 무죄함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한 예를 들자면, 그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것은 언약에 따른 축복이다. 또 다른 예로, 그는 매장되는데, 이 또한 언약에 따른 축복이다. 반대로, 바벨론의 왕은 자식 없이 죽어 시신조차 매장되지 않는다. 둘 다 언약에 따른 저주이다. 다시 말해 시온 왕은 제왕에 대한 자신의 불충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불충에 대해 책임지는 제후왕의 대리 역할을 완수한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께서는 제왕의 역할을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의 제후인 그분의 백성을 도우러 와서 공동의 적인 사망을 멸하신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분께서는 제왕에 대한 제후왕의 역할을 하신다. 그분께서는 백성이 언약 조건에 불충함에 대한 책임을 져 자신과 백성을 위한 제왕의 보호를 얻으신다. 이러한 역할을 맡으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자신보다 더 낮은 사람은 이를 수 없는 것을 성취하신다.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약의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그들 자체가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왕 및 제후의 이러한 이중 역할은 영적 사다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보다 높은 단계라는 관념을 도입한다. 제왕은 제후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다. 반면에, 제후왕은 제왕에게 “종” 또는 “아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가신인 그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제국의 황금기에 그러한 이중 역할을 보여 준 전형적인 예이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아버지”라 불렸고 다윗은 그의 “아들”이라 불렸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자기 제국의 왕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했고, 그들은 결국 그의 “아들”이 되었으며, 그들은 다시 그들 백성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 제후 지위를 지정하여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신보다 더 높으신 분께 응하심을 암시한다. 히브리 선지자들은 그 거룩한 존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El Elyon*)”이라 한다. 다윗 왕이 여호와께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이 응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이 응하신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버지”이며 “아들”이시다. 시내 언약의 조건에 따라 여호와께서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이시며 다윗 언약의 조건에 따라 각 제후왕 개인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 동시에 여호와께서는 자신보다 영적 사다리에서 더 높이 계시는 분이신 아버지께 “아들”이기도 하신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호칭 자체가 그분보다 더 낮은 높으신 하나님들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경전에 나오는 호칭인 “신 가운데 신”과 “주 가운데 주”에서도 알 수 있다.

동물 희생—여호와께서 겪으실 희생의 예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완수하는 두 번째 대리 역할은 동물 희생에서 그 전례를 찾을 수 있다. 모세의 율법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언약의 저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그는 의식에 따라 순수한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동물은 그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사람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 이론상으로는 사람의 범법이 그에게서 동물에게로 옮겨지는 반면, 그는 방면된다. 하지만 실제로 희생 제물은 단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을 상징할 뿐이었다. 어떠한 동물도, 아무리 의식에 따라 순수하더라도, 인간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었다. 더 낮은 종의 생물로서 동물은 그보다 높은 존재를 대신해서 그들의 범법을 속죄함으로써 위쪽을 향해 성역을 베풀 수 없다. 이사야의 영적 사다리에서 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얻을 수 없다.

유월절 어린 양, 붉은 암소, 희생양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동물 희생은 여호와께서 직접 하실 희생의 여러 다른 측면에 대한 전형이었다. 더욱이 범법에 대한 여호와와의 대리 희생은 모든 인간이 필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므로 어떤 인간 예표나 전례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도덕적 행위에 걸맞게 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타락한 상태로부터 구해 낼 수 없기 때문에, 범법과 범법의 결과로부터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 신학과 일관되게, 이사야는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속건제물”로 묘사한다.(이사야 53:7, 10) 두 관념은 모두 시내 언약의 조건하의 의식에 따른 순수한 제물의 희생적인 죽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범법에 대한 여호와와의 속죄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는 희생 동물의 대리 역할을 다윗 언약의 조건하에서 제후왕의 대리 역할과 융합한다. 그런 식으로, 이사야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다윗 가계 왕의 대리 희생 개념을 확립했다. 이사야가 설명하듯이,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이사야 53:8)

여호와께서 다양한 구원 역할을 맡으심

이 이중 개념은 오직 영적 사다리의 여호와 단계에만 적용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그분 백성의 범법을 완전히 속죄하고 그 효과를 되돌릴 수 있으시다. 그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들은 그러한 역전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속죄할 수 없다. 그들은 다만 범법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킬 수 있다. 더욱이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든 범법의 결과를 뒤집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잘못을 그저 용서하고 잊어버림으로써 정의를 조롱거리로 만드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신 언약의 동일한 율법에 매여 있으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는 누군가가 범법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요구한다. 게다가 참된 보상이 합법적이거나 유효하려면, “똑같이” 보상하거나 동일하게 상해를 입어야

한다. 사람들이 범법한 대상이 무한하신 존재인 하나님이라면, 범법에 대한 속죄 또한 무한해야 한다. 인간이나 동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속죄를 하실 수 있다. 게다가 범법에 대한 여호와와 속죄가 무한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범법은 속죄되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요컨대, 그분의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필멸의 위협인 죽음을 없애려면 여호와께서 세 가지 역할을 이루셔야 한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을 대신해서 하신다. 첫째,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제왕으로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죽음을 정복하신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다윗계 왕들의 패튼을 따르는 대리자로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어질 누적된 징벌을 겪으심으로써 그들의 범법에 대해 책임지신다. 셋째,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범법에 대한 실제적인 속죄를 하기 위해 희생 “양”으로 죽으신다.

이러한 신성한 역할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굴욕의 짐을 지시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 그분 자신과 백성을 위한 비교할 수 없는 구원과 승영을 사들이신다. 이러한 신성한 역할들은 여호와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사이의 계약 조건을 이루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을 지키시는 임무를 맡으신다. 더욱이, 그분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조건을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뒤따르는 언약 축복을 이루기 위해 기초를 놓으신다. 그러한 역할이 없었다면, 죽음을 포함한 언약의 저주가 계속 유효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될 것이다. 여호와와 구원하시는 역할은 또한 그분께서 모든 것 위로 올라가기에 앞서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가심을 입증해 보여 준다.

여호와께서 인류의 구주로서 행하실 지상에서의 사명

여호와께서 실제 삶에서 이행하신 이러한 역할들을 하나로 모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1) 지상에 사는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음을 정복하려면, 그분께서는 내려와 지상에 살며 스스로 인간 본성을 취하셔야만 한다. (2)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듯이, 그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은 하나의 형상과 모양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는 변형이 아니라 인류를 죽음에서 속량하려 하나님께서 취하신 낮추심이다.

(3) 다윗 가계 왕들의 패튼에 완전히 따르려면, 그분께서는 다윗 왕의 왕족 혈통으로 태어나 그들의 땅에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셔야 한다. (4) 다윗 언약의 조건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아들”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그분은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조건에서 충실함을 입증하셔야 한다.

(5) 범법에 대해 무한한 속죄를 하려면, 이질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반드시 하나님 본인이어야 하므로, 문자 그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야 한다. (6) 가장 높은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을 보여 주려면, 그분께서는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며 특별한 신성한 권능을 나타내 보이셔야 한다. (7) 자신과 자신의 지상 사명에 관해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으려면,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셔야 한다. (8) 그분의 고난과 굴욕이 완전해지려면, 자기 백성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고 거부받으며 잔인하게 죽음에 처해지셔야 한다. (9)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죄를 받으려면, 영적으로 사악한 역사적인 시기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야 한다.

(10) 모반하는 제후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분을 기소하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치적 또는 성직자 권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1)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정죄하여 죽게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분을 불의하게 정죄하는 것이다. (12) 모세의 율법을 이루려면, 그분의 희생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의식적 의례와 일치해야 한다. (13) 의식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에 의해 희생되어, 피를 흘림으로써 흠이 없는 희생물로 죽으셔야 한다.

(14) 그분의 속죄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행위가 되려면, 믿을 만한 증인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구주께서 공의의 법을 이루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초월한 무한한 속죄를 하심으로써 회개하는 백성의 범법을 지워 죄 사함을 가져오신다. 그리고 그들의 범법이 지워질 때, 범법의 결과인 언약의 저주가 뒤바뀔 수 있다. 더욱이 여호와께서 공의의 요건을 이루심으로써, 범법하기를 그치고 언약 조건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 정당화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를 그분의 백성과 개인들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직접 그들의 범법에 따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참된 근거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럽고 불의한 하나님이실 것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제왕-제후 언약 패턴에 따라 구원의 역할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여호와께서는 “아버지”인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조건을 지키신다. “아들”인 여호와께서는 모든 조건에서 충실함을 입증하여 그분 백성에게 분이 되신다. 전혀 죄가 없으신 자기 모습 그대로 흠 없는 양이신데도 그분께서는 범법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다. 그 경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언약의 조건에 따라 “공동의 적”인 죽음으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유일한 방법은 그의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분께 충성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은 하나님의 언약 조건에 따라 백성을 대신하여 다윗 가계의 왕이 수행하는 대리 역할에서 비롯된다. (제왕은 제왕의 율법을 지키는 충실한 제후 및 제후의 율법을 지키는 제후에게 충실한 모든 사람을 언약의 조건에 의해 존망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사야가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고 말할 때(이사야 45:23), 모든 인류가 적절할 때에 그들의 대리 구원자이신 시온의 왕 여호와 때문에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밝힌다.

세계 종말 때의 상황 역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같은 징표로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 백성에 대한 모든 언약의 저주를 뒤집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모든 범법을 지심으로써 그렇게 하신다. 사망과 부활은 범법 효과의 역전을 보여 주는 가장 생생한 경우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로서 언약의 조건을 지키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할 세계의 종말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널리 일어날 것이다. 종말 때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영적 사다리를 올라가는 일이 전에 없이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범법하기를 그칠 때까지는 사망을 영구적으로 폐지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범법하는 수준을 넘어설 만큼 영적 사다리를 오를 때, 그리고 계속 범법을

해 온 모든 사람이 땅에서 깨끗이 사라질 때, 여호와께서 그분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죽음이 사라지고, 언약의 저주가 소멸할 것이다.

추가적인 저주 역전의 예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상속하려고 흩어진 곳에서 돌아오는 것도 포함한다. 시온의 황폐한 곳은 복원되고 성전이 재건된다. 여러 상속의 땅은 비옥함을 되찾고 에덴동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할 것이다. 두려움과 병은 사라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사람들은 여호와와의 면전에 거하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의 밝음을 누릴 것이다.

이사야의 공존 구조에 따라 바벨론이 저주를 받아 무너지는 동시에 시온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바벨론이 죽어 가는 바로 그 시간에 시온은 재탄생을 경험할 것이다. 바벨론 왕의 공포 정치가 끝날 바로 그 “여호와와의 날”에 시온의 왕은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 오실 것이다. 따라서 시온의 상황 역전은 바벨론의 상황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상황이 역전되는 이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사다리를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반면에, 적어도 시온/예루살렘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으로 내려가 멸망한다. 시온의 왕과 바벨론의 왕은 그 상승과 하강의 본보기가 된다. 세계의 종말 때 바벨론의 왕이 굴욕을 받음은 앞서 그가 자신을 스스로 드높인 결과이다. 세계의 종말 때 시온 왕이 높이 들림으로써 2부 드라마가 종결된다. 그분께서 고난받은 제후로서 이전에 겪었던 내려감과 굴욕은 무한한 사랑의 행동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9

종말

“여호와의 날”

이사야 예언의 문학적 특징 속에 세계 종말의 청사진과 신약 신학이 암호화되어 있다고 결론지음.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에 앞서 일어날 의인과 악인의 엄청난 분열에 대해 묘사함. 그 당시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과거의 패턴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에서 그분께 충실함을 입증하여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육체적으로 구하러 오시는지 되풀이함.

보다시피, 나는 이사야서를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정보의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사야가 책에 아주 많은 복잡한 문학적 패턴을 쌓아 놓았다는 것을, 또는 이런 패턴 속에 아주 많은 비밀, 그토록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그런 발견들은 히브리 예언에 대한 나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이사야의 글을 오늘날과 연관 지으려는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이러한 발견을 통해 충분히 받았다고 느꼈다. 물론 나는 이사야가 우리 시대에 대해 말한다는 것을 반박의 여지가 없도록 입증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종말 시나리오를 서술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느낀다.

현대의 종말론적 열성자들과 함께 오늘날의 세계 강대국과 기타 국가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임박한 국면에 대해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사야가 예언한 바는 이들 국가들이 무엇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일치한다. 이사야는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언한다. 나는 이사야의 종말 시나리오가 그 일이 일어난 후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종말이 실제로 현재의 세계 사건들로부터 전개될 수 있는지, 그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아주 유사한 신약 예언

이사야서 이외의 다른 경전 자료들도 이사야의 종말 시나리오를 강력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사야의 종말극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일 중 하나는 앗수르 왕의 세계 무대 등장이다. 그는 대폭군으로 동맹국과 연합하여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태복음 16:26)라는 말씀은 영적 조언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에 관한 예언일 수도 있다. 참으로 이사야의 대폭군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밤의 도둑”과 매우 흡사하다. 결국 그는 많은 사람이 전혀 예기치 못할 때에 그들을 공격할 배신자로서, 세계 역사상 가장 암울한 때가 될 “여호와의 날”에 열국의 부를 약탈할 자이다. 그는 부패하고 문제투성이인 인류를 과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기에, 그의 출현은 세상의 종말, 즉 바벨론의 종말을 예고한다.

이사야의 종말 시나리오는 예수의 재림에 관한 다른 신약의 예언에 어떻게 부합되는가?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에서처럼,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배도가 일어난 후 바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바로 이 대폭군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데살로니가후서 2:3~4)

이사야처럼, 바울도 거짓 주장자의 출현을 세계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을 종말과 연결한다.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데살로니가후서 2:8~12)

따라서 이사야와 바울은 종말의 대폭군 또는 적그리스도를 포함하는 물리적 전쟁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적 전쟁을 예언한다. 이 악인은 여러 국가들과 어마어마한 군대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전쟁을 벌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다니엘은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며 그 뿔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힐 짐승을 보았다.(다니엘 7:23~25 참조)

모든 사람의 분열

이사야 글의 혼돈-창조 패턴에서 볼 수 있듯이, 대폭군은 한동안 하나님의 백성보다 우위를 점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충실함을 극도로 시험하실 것이다. 오직 그 방식으로만 그들은 영적 사다리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사기꾼이 말하는 달콤한 평화의 말에 속아 넘어갈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과 굴욕의 시련을 견뎌 내야 하는 일을 꺼릴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내려갈 것이고 어쩌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을 거의 알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마태복음 24:9~10)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시온이 통과하는 것과 같은 충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악인들과 함께 바벨론 수준으로 내려간다.

그날에 겁쟁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스스로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그들은 어찌지 못하고 악한 환경에 휩쓸려버릴 것이다. 그들은 구주와 의절했기 때문에 구원의 희망 없이 지낼 것이다. 그들은 유일하게 그들을 구해 낼 수 있으신 하나님께 적그리스도처럼 화를 낼 것이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알렸듯이, “여호와와 의 날”에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사람은 멸망할 바벨론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심지어 “주께서 재림을 미루실 것”이라고 말하는 권력자인 하나님의 “악한 중”을 모방할 수도 있으며, 그와 같이,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 종의 주님께서 종이 그분을 찾지 않는 날에,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서, 그를 산산이 잘라 내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마태복음 24:48~51 참조)

이사야가 이사야서 22장에서 묘사하는 불충실한 청지기인 썩나와 마찬가지로, 충실함을 입증한 하나님의 종은 불충한 자를 대체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마태복음 24:45~47) 다윗이 사울을, 그리고 엘리야김이 썩나를 대체함은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이 악한 종 및 기타 적들을 대체하는 것에 관한 성서적 예표를 제공한다.

그날에 시온과 싸우는 모든 사람은 앗수르의 왕부터 마지막 배도자에 이르기까지 그들 스스로 멸망한다. 증오와 분노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절된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자 획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놓은 함정에 빠질 것이다. 모든 기만을 일삼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인간을 탄압하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들이며 “사망의 언약”에 서명한 자들임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계의 모든 시대에서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아 왔지만, 세계의 종말 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임을 표시한다. 예수께서 예언하셨듯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때가 올 것이다.(요한복음 16:2)

그날에 의인과 악인의 엄청난 분열이 일어난다. 요한의 시현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서도 바벨론을 시온이 아닌 모든 것, 또는 시온과 연합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 밝힌다. 각 진영의 사람들은 모든 중간 위치가 사라져 감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거나 거역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들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구출될지 또는 멸망할지가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롯을 소돔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백성을 앗수르 사람들에게서 구출하셨던 것처럼, 언약의 백성이 다가올 재앙을 피해 탈출할 길을 마련하신다.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됨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과멸의 예언을 무효로 하실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니스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요나의 예언을 예로 든다. 니스웨 사람들이 사악함을 회개하자 니스웨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니스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 같아 당혹해하며 화를 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니스웨를 멸망시키셨다. 토빗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 해가 지난 토빗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요나의 예언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하셨다. 다만 그 일은 요나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에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더 나아가 오늘날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니스웨 백성처럼 신속하게 사악함을 회개해야 할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왕과 백성은 요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 합심하여 그들의 악한 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국가로 문자 그대로 회복된다는 예언이 영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히브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많은 사건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비유적이라고 믿는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세계 사방에서 악속의 땅으로 탈출하여 돌아오고, 예루살렘 및 성전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고대 정착지를 재건하며, 여호와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러 오실 것이라는 이러한 모든 예언이 신비하게 성취된 것들의 단순한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로 사람들의 현재 신학에는 태고부터 내려온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요나의 예언처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꿀 수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것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은 실제로 오늘날과의 관련성이 매우 적은 게 아닐까? 아니다. 오히려, 세계의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관련이 더 깊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구주-하나님 신학이 당대에 비해 오늘날에는 그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사야의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비춰 볼 때, 그것은 모두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에 못지않은 의미가 있다. 나사렛 예수의 생애는 고난받는 구주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루지 않는가? 이사야가 그의 책에 암호화한 신약전서 신학을 누가 잘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한 구호로 전락시키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학이 아니며, 개인적인 의로움을 위해 공들인 예배를 대체하는 사람들의 신학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풍성한 포괄성을 모두 갖춘 예수님과 고대 제자들의 신학이다.

더구나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합법적인 기대를 잘 설명해 주지 않는가? 지상에 하나님의 정치적인 왕국을 회복하고, 유배된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으고, 이전 장소에 성전을 건립할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희망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이가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이사야와 다른 히브리 선지자들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만나러 유배지에서 본향으로 돌아와 함께 모인 백성에게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맞기 위해 세워진 성전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위해 회복된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과 그를 돕는 종들이 여호와께서 다스리러 지상에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지 않겠는가? 또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시겠다는 예언이(사도행전 3:21) 이뤄지지 않겠는가? 아니면, 한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회복이 되겠는가?

의는 구원에 선행함

이사야의 글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구원의 화신이다. 어떠한 구원도 그분 없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구원을 구현하시며, 구원이다. (예수, 즉 예수아[Yeshua]라는 이름 그 자체가 히브리어로 “구원”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은 의의 화신이다.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하기 때문에 그를 “의”라고 부른다. 사해 두루마리 단체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와의 속성에 대한 이러한 화신들을 인식했다. 이사야에 따르면, 구원은 의가 확립될 때까지는 올 수 없다. 다시 말해, 의는 구원에 선행하거나 구원의 선구자로 활약한다.

이사야서의 이 언어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조건을 지키고 모든 조건에서 충실함을 입증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에게서, 죽음으로부터, 범법의 모든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하실 것이다. 이사야는 의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과부와 고아의 대의를 옹호하고, 억압받는 자를 옹호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을 포함한다고 가르친다. 의란 우리 자신의 편리한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은 세계의 종말 때에 존재하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실함으로써 귀감의 역할을 한다. 히스기야 왕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의의 귀감으로 활약한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도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에게 기쁨 부음을 하고 능력을 부여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이 끝나면 여호와께서 오신다. 침례 요한이 고난받는 구주로 초림하시는 예수를 위해 길을 예비했듯이, 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시온의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한다.

과거—미래의 패턴

이사야의 종말 시나리오에 관해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과거의 패턴을 따른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행하셨던 것과 같은 것들만 행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이 신성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패턴을 따르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위조물은 특히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넘쳐날 테지만, 제각기 그 본성을 무심코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시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조차 미혹될 정도로 너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언하셨다.(마태복음 24:24; 강조체 추가)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은 속임을 당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모든 조건에서 충실함을 입증하도록 도움을 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택함받은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사야의 영적 사다리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 딸들과 여종들이다. 이들은 세계의 종말 때에 세계 사방에서 새로 탈출하여 시온에 모인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같이 선언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이사야 43:5~6)

“여호와와 의 날” 그리고 그보다 앞선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많은 사람에게 영적 사다리를 올라갈 기회가 주어져 상당수의 하나님 “종들”과 “아들들”이 스랍 수준으로 올라가 “불꽃”처럼 되어(시편 104:4) 모든 반대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자들로, 그들에게 권한이 주어져 불, 물, 사막, 광야 등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렇게 예언하셨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태복음 24:31) 이사야에 따르면, 나팔 소리는 “여호와와 의 날”에 흠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하나님의 종과 그를 돕는 사람들의 사명이 도래했음을 알린다.

하나님께서 고대에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타나셨듯이, 그분께서는 시온산에서 스랍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게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이사야 24:23) 오바द्या는 하나님의 종 중에 스랍 부류를 “시온 산의 구원자”로 묘사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 산에서 “여호와와 의 날”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오바द्या 1:15, 17, 21) 요한은 이스라엘 지파마다 만 이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시온 산에 어린양과 함께 설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은 지상에서 큰 멸망의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하는 인치심을 받는다.(요한계시록 7:1~8, 14:1~5 참조) 따라서 각 선지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 백성의 영적 범주를 동일하게 묘사한다.

“여호와와 의 날”에, 그리고 그보다 앞선 때에 영적 시험들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주어져 사람들이 사다리를 오르는 것을 쉽게 한다.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해 왔던 온갖 어려움이 압축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실패하게 이끈다. 두 방법에 관한 종말적 교리는 그때 완전히 실현된다. 예수님의 밀과 가라지, 양과 염소,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비유는 종말의 구분하는 특성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언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망의 언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악마가 된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십일조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호와와 그의 날”에 일어날 인류의 나뉘음을 보여 준다. 그날에 멸망을 피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와 그의 십분의 일”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중 십분의 일 또는 “십일조”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인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백분의 일밖에 안 된다.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에게 증가분의 십분의 일을 바쳤다. 레위인은 그들이 받은 것의 십분의 일을 제사장들에게 바쳤다. 그 백분의 일은 “거룩한 것”이라고 불렸다.) 한 종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또 다른 보호하심은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사야는 후자의 무리를 “거룩”하다고 묘사한다.

뚜렷이 구분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예들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세계의 종말 때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명확히 밝힌다.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의 영웅들이 수행했던 구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할 것이다. 그를 돕는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들도 비슷하게 구하는 역할을 많이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역할은 남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정당하게 묻는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선지자들이 남성 우월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귀감 역할을 한 여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점이 그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가르치는 정수를 놓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 귀감 역할을 하는 여성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지도적 지위를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의 선지자들이 남성 우월주의자들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더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은 직관적인 의의 감각을 가진 반면, 대다수 남성은 그러한 감각을 배우기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에게 겪게 한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백성 및 개인들과 맺는 언약은 뚜렷이 구별되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정의한다. 남자는 구원자일 수 있으나 여자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언약 관계가 아니고서는 남자 또는 여자를 위한 보호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는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함으로써 여자가 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공로를 치하받을 자격이 있다.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남자들의 구원자 역할은 히브리 선지자들의 신학에서 가부장제를 위한 공식적인 기반을 확립한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말해 준다. 여성들은 그들의 고유한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영적 사다리를 올라간다.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시온을 여인으로 언급하는 부분이 나타난다. 그녀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비유적으로 의인화한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개별 여성의 귀감 역할을 하기도 하다. 그녀가 하는 일들은 모든 여성을 위한 패턴을 확립한다. 그 일들은 그녀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룬다. 여기서는 다만 부분적인 개요만 줄 수 있다.

영적 사다리를 올라가는 모든 사람처럼 여인 시온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시련으로 내려간다.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범한 것을 회개한다. 그녀는 범법의 결과인 언약의 저주를 충실히 견딘다. 그녀는 자신의 고난을 임신 기간처럼 견딘다. “여호와와 그의 날”이 다가오면서 그녀는 산고를 겪는다. 그녀는 구원자인 “아들”을 낳는다. 그녀는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보살핀다.

“여호와와 그의 날”에 아들은 그녀를 대폭군 및 기타 그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구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하나님의 결혼 그늘에 있는 안전으로 인도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는 영광 구름으로 그녀를 덮어 보전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녀와 무조건적 언약인 생명의 언약을 맺어 그녀를 되찾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녀가 겪는 저주를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신다.

그녀는 짧은 날의 수치와 과부의 오명을 잊어버린다. 그녀는 자녀들의 국가를 낳아 충분히 위로받는다. 그녀는 보좌에 앉아 권능의 옷을 입고 지배력을 넓힌다. 그녀는 신부가 보석으로 치장하듯이 자신에게 돌아온 자녀들을 자신에게 묶는다. 내쫓기고, 사별을 당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녀가 이제는 수많은 자식들로 기쁨에 넘쳐 노래한다.

이 상징적인 이미지에서 우리는 그 여인이 남자를 낳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녀의 역할은 그가 구원자의 역할을 완수하도록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남자는 그녀가 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녀의 기대에 부응한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기대하기 때문에 그녀를 구출한다. 여기에 가장 좋은 상태의 가부장제와 모계 중심제가 있다. 어느 하나도 서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는 모두 서로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로서의 서로의 역할을 완수함으로써 함께 올라간다.

그들의 자녀들은 남자와 여자가 각자 자신의 개별적인 역할을 이행할 때 혜택을 입는다. 그들은 축복된 후손의 왕과 여왕과 비슷하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성과 여성의 패턴을 따름으로써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훨씬 더 높은 영적 수준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행하도록 기대하시는 구출자 또는 구원자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그 자신의 신성한 역할을 폄하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여호와 아래의 모든 수준에 있는 구출자 또는 구원자는 직접적으로 하든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든 간에, 실제 구출을 하기 위해 사실상 그분께 의지한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도록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시는 만큼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조건에 따라 그들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지키고 모든 조건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함으로써 온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종의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신성한 속성을 얻도록 준비하셨다. 그분은 더 높은 영적 수준들에서와 더 낮은 영적 수준들에서의 언약 관계를 수립하고 그분 백성에게 자신과 자신의 종들을 본받도록 격려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틀 안에서 제공하시는 더 높은 성역 직분으로 성장해 감으로써 영적 사다리를 올라간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늘로 향하는 영적 여정과 다가오는 “여호와와의 날”에 대한 준비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다. 그 계명은 미래의 그때 반드시 있을 조건하에서 하나님께 충실함을 입증하기 위해 분명히 그 모든 것과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종말 전의 간략한 경고

종말의 때는 예언된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다니엘과 요한은 세계의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이 3년 반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야는 먼저 3년간의 경고 기간이 주어진 후 하나님 심판이 3년간 임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사야는 3년 동안 앗수르가 에굽을 지배할 것이라고 공표했으며, 그 당시에 그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의 7부 구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바벨론에게 회개하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지 충분히

경고하신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종말 시대 종은 “여호와와 의 날” 전에 그의 사명을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다가올 재앙에 대해 경고하도록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종말 때에 종을 부르신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범법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고자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시대가 변했음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불행한 운명을 굳게 붙들어서 사라질 것이다. 이사야는 그러한 사람들을 재에 비유한다. 그들은 겨우 불티로 자신의 길을 비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둠을 밝히고자 보내신 빛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복수와 보상을 동시에 하러 오신다. 그분께서는 그분 백성에게 행해진 나쁜 일들을 복수하고 그들의 의에 따라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기다려 오고 영적으로 올라간, 시온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신다. 그분께서는 정부의 보좌가 있는 성전에 오셔서 의로운 통치를 수행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시온의 왕으로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복천년 동안의 평화가 지구에 시작되게 하신다. 이사야에게는 지상을 다스리러 오시는 여호와와 영광스러운 강림이고, 기독교인에게는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의 재림인 그 사건은 세계를 바꿔놓을 같은 동일한 사건일 것임이 확실하다.
